

2026 이탈리아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8
가. 정부 현황	08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08
3. 주요 이슈 Pick	13
가. 산업 혁신·인프라 확충 : 국가 경쟁력 강화 추진 지속	13
나. 방위·안보 투자 확대 : SAFE 활용과 2035 장기 목표 설정	14
다. 고령사회 본격화 : 의료·헬스케어·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	15
라. 노동시장 이중 현실과 소비 양극화 : 구조 전환 압력	16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8
가. 시장 특징	18
나. 무역	22
다. 산업	29
라. 투자	32
2. 유망 산업	37
가. 재생에너지	37
나. 의료기기·디지털 헬스	39
다. AI·디지털(제조업 자동화·스마트팩토리)	41
3. 협력 기회	44
가. 통상·G2G	44
나. 프로젝트	46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49
2. 진출전략	51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60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61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62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63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책(정책) 환경	08
3. 주요 이슈 PICK	13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경제 전망

- '26년 이탈리아 실질 경제성장률은 0.8%로 소폭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IMF, 2025.10)
 - 국내 수요(민간소비·공공투자)가 성장의 주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대외 부문은 글로벌 교역 둔화와 보호무역 심화로 기여도가 제한적일 전망

□ (호재 요인) PNRR(이탈리아 복원 및 회복성) 프로젝트와 완화적 통화정책

- EU 회복기금을 활용한 PNRR(이탈리아 복원 및 회복성)의 마지막 해로, 남은 예산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 지속 중
 - '25년까지 집행률은 약 70%이며 잔여 자금이 '26년에 집중 투입될 예정으로, 인프라, 디지털 전환, 녹색 에너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스마트시티 등 핵심 프로젝트 집행이 본격화되며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 PNRR : EU 회복기금을 활용한 '21~'26년 5개년 중장기 국가 회복 프로젝트로, 에너지 전환, 전기차, 친환경 건축·인프라 등 중점 투자 분야
 - 또한, 유럽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소비와 투자 회복을 뒷받침할 전망
 - * 기준금리는 '25년 6월 이후 2.15%로 유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목표에 따라 신중히 운용. 기업과 가계의 금융 조달 여건 개선에 기여

□ (부진 요인) 대외 불확실성 심화와 재정·구조적 리스크 지속

- 미국발 보호무역 심화와 글로벌 수요 둔화, 구조적 리스크 지속
 - 미국발 관세 충격(자동차·철강·제약 등)에 따른 對美 수출 둔화 우려, 독일 경기 침체 장기화 시 對EU 수출 회복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
 - 對美 수출 비중이 약 10%로 높은 이탈리아 산업(자동차·제약·철강)이 직접적 충격 노출
 -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24.3%), 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요인 누적으로 내수 회복 속도가 제한적일 전망
 - '25년 기준 공공부채 비율이 GDP 대비 137%로(IMF, '25.10.), EU 기준(60%)을 크게 상회, 재정 건전성 압박 지속

□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 명	59.8	59.6	59.2	59.0	59.0	59.0	59.0	58.9
명목 GDP	십억 달러	2,012	1,896	2,156	2,069	2,305	2,372	2,544	2,701
1인당 명목 GDP	달러	33,628	31,785	35,717	34,085	39,074	40,224	43,161	45,883
실질 성장률	%	0.5	-9.0	7.0	3.7	0.7	0.7	0.5	0.8
실업률	%	9.9	9.3	9.5	8.1	7.7	6.6	6.7	6.7
소비자물가 상승률	%	0.6	-0.1	1.9	8.7	5.9	1.1	1.7	2.0
재정수지(GDP 대비)	%	-1.5	-9.7	-9.0	-8.0	-7.2	-3.4	-3.1	-2.7
총 수출	십억 달러	513.8	472.1	584.7	622.3	627.0	623.6	642.3	671.2
(對韓 수출)	억 달러	53.6	52.9	61.5	74.2	71.5	66.1	42.3(8월)	-
총 수입	십억 달러	446.0	393.5	522.5	643.1	587.5	554.5	578.9	617.2
(對韓 수입)	억 달러	41.8	35.7	50.0	63.4	62.3	56.7	39.2(8월)	-
무역수지	십억 달러	67.9	78.6	62.2	-20.8	39.6	69.1	63.4	54.0
경상수지	십억 달러	64.5	72.0	53.1	-26.7	3.3	26.8	29.8	21.1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1	1.2	1.1	1.1	1.1	1.1	1.1	1.1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97.9	-21.2	279.7	-18.7	211.5	370.1	189.6(1Q)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81.5	-236.2	-89.6	199.5	326.4	247.1	218.4(1Q)	-

주: 2025년은 추정치, 2026년은 전망치

자료: IMF(인구, 명목GDP, 1인당 명목 GDP, 실질 성장률, 실업률, 물가 상승률, 재정수지), EIU(환율, 총 수출, 총 수입, 무역수지, 경상수지), GTA(대한 수출입), OECD(투자), '25.10.31. 기준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25년 성장률은 통상 불확실성 및 순수출 부진으로 약 0.5% 수준에 머문 가운데, '26년은 0.8%로 소폭 회복세 전망(IMF, '25.10. 기준)

- 민간소비의 점진적 회복(실질임금·고용 개선)과 PNRR 투자 집행 가속이 성장에 기여, 순수출 기여도는 마이너스 또는 제한적 전망
- 실업률 6.7%('25.9.)로 팬데믹 이전 대비 낮은 수준, 물가 상승률은 2% 안팎으로 안정적 흐름을 보이며 실질소득 개선에 따른 소비력 유지
- 미·EU 관세는 15%로 협상됐으나, 일부 핵심 제품에 대한 특별세율, 그리고 최대 교역국인 독일 경제 둔화가 전반적인 리스크로 상존

* 독일은 2분기 GDP -0.3%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독일 제조업 PMI 부진과 투자 지연은 이탈리아 기계·자동차·중간재 수요 위축으로 직결

이탈리아 GDP 성장률 동향('24~'26년)

(단위: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전망			
			ISTAT(통계청)	EU(유럽연합)	IMF	OECD
GDP 성장률	0.7	0.5	0.8	0.9	0.8	0.7

자료: IMF, ISTAT, OECD, European Commission, 2023~2024년은 IMF 자료('25년 10월 기준)

- (소비) 소비지출은 전년도에 이어 '26년에도 0.7% 수준의 완만한 회복세 유지 전망(ISTAT, '25.10. 기준)
 - 인플레이션 안정세로 가계 구매력이 회복되면서 임금의 완만한 상승과 고용 개선에 힘입어 점진적 회복세
 -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완화 기조로 금융 여건이 개선되며 주거·내구재·서비스 소비 증가 및 소비자 신뢰가 강화될 전망
 - 그러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비 구조 변화, 불확실성에 대한 가계의 신중한 지출 성향, 에너지 분야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
- (민간투자) '26년은 PNRR 마지막 해로 디지털·그린·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전망으로 민간을 중심으로 ICT·친환경 설비·자동화 분야에 투자 진행
 - 제조업 설비 투자는 비용 및 수요 불확실성으로 인해 선별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출 의존 업종은 보수적 기조를 유지할 전망
 - * PNRR 자금 집행률은 약 72%('25.9. 기준)로, 행정 지연과 절차 부담이 투자 실현 속도에 변수로 작용
 - 미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 및 글로벌 수요 둔화가 설비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이거나, ECB의 완화 기조가 자본 조달 여건을 개선해 하방 리스크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
- (산업 생산) 제조업 비중 하락 추세('24년 GDP의 16.3%) 속, '26년에는 완만한 저점 통과 전망
 - 산업 생산은 장기 침체에서 점진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25년 3분기 제조업 설비 가동률은 75.5%로 저점 통과 신호를 보임(TradingEconomics, '25.9.)
 - * 제조업 설비 가동률(%): 75.9 '24.3Q → 74.9 '24.4Q → 74.7 '25.1Q → 75.1 '24.2Q → 75.5 '25.3Q
 - 의약·기계·디자인 연계 고부가 서비스는 성장세 유지, 반면 에너지·전력 비용 증가 및 규제·사법 절차 지연은 여전히 생산성 제약 요인
 - 전통 제조업(금속·철강·화학)은 글로벌 수요 부진과 미·EU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며, 중소 제조업체는 에너지·금융 조달 비용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
- (대외교역) '25년 6월 기준 수출입 모두 감소세를 보였으나, '26년 EU 역내 경기 회복과 운송장비·의약 등 주력 품목 확대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 전환 전망

- 그러나, 최대 교역국인 독일의 경기 둔화는 이탈리아 수출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커
기계·자동차 등 주력 품목 수요 위축 우려가 상존
* 미국은 2위 수출 시장(비중 약 10%)으로, 일부 품목의 고율 관세 및 제도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대미 수출 증가세는 제한적일 전망
- (투자 유입) '26년 브라운필드 중심 투자 기조는 지속되나, EU의 그린·디지털 전환 정책과 맞물려 제조·에너지·물류 분야에서 제한적 신규 투자(그린필드)가 병행될 전망
 - '24년 FDI 순유입 규모는 약 2,178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제조·통신·에너지·의약이 대표적 유입 섹터(UNCTAD, '25.9 기준)
 - 프랑스,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이 주요 투자 유입국으로 EU 내 가치사슬이 유입의 핵심 축을 형성
* '25년 1분기에는 이탈리아가 전 세계 최대 FDI 순유입 국가로 집계되는 등 분기 기준 변동성이 큰 특징
- (투자 진출) '24년 이탈리아의 해외 직접 투자(FDI Outflow) 규모는 약 370억 달러로, 전년(211억 달러) 대비 약 75% 증가(UNCTAD, '25.9. 기준)
 - 주요 진출국은 EU 역내(프랑스·독일·스페인·동유럽)와 미국으로, 기계·자동차 부품·패션/명품·에너지·유틸리티 분야 중심의 투자가 활발
 - '26년에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현지화 및 시장 근접 생산 확대, 친환경·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중심 투자 증가 전망
* 금융 규제 및 자본비용 변동성을 감안한 합작·컨소시엄형 진출 선호가 이어질 전망

2. 정치(정책) 환경

-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 안정적 국정 운영으로 '27년까지 임기 유지 전망
- EU 회복기금 활용한 5개년 PNRR 프로젝트('21~'26), 집행 가속화
- 플라스틱세·설탕세, '26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기업 비용 증가 가능성
- ESG 규제(EU CSRD, CSDDD 등) 국내 이행 본격화, 공급망 관리 부담 확대

가. 정부 현황

□ 우파 연합정부, 연정 기반과 높은 지지율로 국정 주도권 강화

- 이탈리아는 다당제 연합정부 체제로, 단일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워 연정을 통해 정부 구성
 - 양원제(상원·하원) 하에서 모든 법안은 동일한 형태로 양원을 통과해야 해 입법 지연과 정책 후퇴가 빈번
 - '22년 총선 전 의회 의석 조정(하원 630석 → 400석, 상원 315석 → 200석)이 이루어졌으며, 현 정권 내 추가적인 제도 개혁은 제한적일 전망
- 멜로니 총리(이탈리아 최초 여성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립정부는 '22년 총선에서 약 60% 의석을 확보하며 안정적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
 - 야권(민주당, 오성운동 등)은 분열과 전략 부재로 정권 견제력이 약화, 現 정권의 안정성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
 - '25년 주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우세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더욱 공고해짐
 - * 이탈리아는 잦은 정권 교체(76년간 68개 정부)로 정치적 리스크 상존, 그러나 이번 정부는 '08년 이후 처음으로 안정적 정권 유지로 다음 총선인 '27년까지 임기를 채울 것으로 예상
 - EU 재정규율 준수 문제,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 여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대응 등이 향후 정국 안정성의 주요 변수로 남아 있음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5개년 이탈리아 복원 및 회복성(PNRR) 개요와 집행 현황

- 이탈리아 정부, EU 회복 기금을 활용한 5개년 프로젝트('21~'26)로 총 1,914억 유로 지원금 투입
 - (개요) '26년까지 진행되는 '이탈리아 복원 및 회복성(PNRR)' 프로젝트로 디지털 전환·에너지 전환·운송 인프라·교육시스템·사회안전망·보건의료 분야 등 6개 분야에 총 1,944억 유로의 지원금 투입

- (진행 현황) '25년 9월 기준, EU 공식 지급액 기준 자금 집행률은 72%('25.8. 7차분 반영), 행정적 집행은 64% 내외로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지속

* 프로젝트 및 내용 확인 : <https://openpnrr.it/>

이탈리아 복원 및 회복성(PNRR) 프로젝트 개요

정책명	예산(십억€)	주요 세부 정책
1. 디지털화(정부 및 행정시스템), 관광 및 문화	41.34	전체 예산 중 21.26%
행정 분야에 대한 디지털화와 혁신		정보 보안, 디지털 정부
경쟁력 있는 생산 시스템화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관광 및 문화 산업의 4차 혁명		문화유산 디지털화
2. 녹색 혁명 및 사회, 경제를 위한 생태계 보호	55.52	전체 예산 중 28.56%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		EU 지속가능한 발전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		수소·신재생에너지 등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건물 설비 운영 최적화
토양 보호와 수자원 관리		생물다양성 수자원 보호
3. 지속가능한 운송 체계를 위한 기반 구축	23.74	전체 예산 중 12.21%
철도 운송 체계에 대한 투자		국가 고속 철도망 확장
복합운송 및 전체적인 물류 시스템 개선		항공 통합 운송 시스템 구축
4. 교육 및 연구	30.09	전체 예산 중 15.48%
교육서비스 강화 : 유아부터 대학교육까지		교육격차 해소·대학 진학을 제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교사의 채용 확대 및 교사 교육
5. 포용과 융합	16.92	전체 예산 중 8.7%
노동 정책		노동 시장 개선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사회 기반 시설 마련		여성 창업 장려 및 환경 개선
국토 발전 계획 수립		특별 경제구역 지정 및 국가전략 수립
6. 건강·의료 보건	15.62	전체 예산 중 8.03%
지역 의료보험 구조 개선		의료진 기술 역량 향상 및 연구개발 지원
국민 건강 보험 디지털화		원격 의료 및 진료 기록의 전자화
7. 에너지 전환	11.18	전체 예산 중 5.75%
예산 합계	194.41	

자료:伊정부 Piano Nazionale di Ripresa e Resilienza(Next Generation) 정책집('21년 4월)

- '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60% 감축 목표를 유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추진
 - 최종 소비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40%로 유지하며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 * 이탈리아 정부는 '21년 발표한 '2030 국가 에너지 기후계획'에서 '30년까지 1990년 대비 60%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음
 - 태양광, 풍력 용량을 늘리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과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 간소화로 빠른 재생에너지 확보 움직임
 - * '24년 기준 이탈리아 신규 신재생 발전용량은 7.5GW로 전년대비 29% 증가, '25년 상반기 이탈리아는 2.7GW의 신규 신재생에너지 용량 추가 확보
 - '50년까지 국가 전체 전력 소비량의 최소 11%를 원전으로 충당하기 위해 10년 이내 원전 가동을 목표로 '27년까지 법령 완비를 목표로 하고 있음
 - * '지속가능한 원자력을 위한 국가 플랫폼(PNNS)' 출범 후 본격적인 원전 도입이 진행, '25년 2월 정부 내각에서 초안이 승인됐으며 현재 의회에서 추가 논의가 진행 중

□ 재정 긴축 유지와 함께 선별적 재정 지원 정책 지속

- 감세 기조로 세수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한 제한적·선별적 재정 지원 기조 지속
 -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전환 등 성장 친화적 투자는 유지하는 한편, EU 재정 규율 준수를 위해 사회복지·보조금 등 일부 지출은 조정 중
 - 고령화·연금 지출·기후 대응·안보비용 등 구조적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연금 개혁, 탈세 대응 강화, 민간 자원 활용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병행 추진
 - * 전면적 재정 개혁보다는 감세와 가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온건한 재정정책을 지속하며 사회안전망 유지에 주력

※ 이탈리아 재정정책 동향

- 가계 지원 및 사회복지
 -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세금 감면 및 소득세 과세 구간 축소
 - 출산 장려책으로 자녀수당 강화 및 다자녀 가족 대상 지원 확대
- 에너지 위기 대응
 - 가계와 기업에 에너지 비용 지원(세금 감면 및 보조금)
-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화
 - 시칠리아와 본토를 잇는 다리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확충 추진
 - PNRR(국가 경제회복 및 복원 계획) 기금을 활용한 디지털화·에너지 전환 투자 확대
- 조세·재정 개혁 추진 동향
 - 소득세 구간 축소(4단계 → 3단계), 법인세 인하 및 지역세 폐지 추진
 - 고소득층 세액공제 축소, 친환경 과세 조정 등 병행
- 높은 국가부채로 인한 재정정책의 한계
 - 감세 정책으로 세수 기반이 축소된 가운데, 국채 발행을 통해 제한적·선별적 지원책을 시행
 - 가계·기업 지원은 유지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부채 부담 확대와 재정 건전성 악화 위험 상존

- 방위 및 국가안보 비용 증액이 본격화될 예정으로, 국방 지출 확대가 재정 부담의 추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재정 자원 확보 차원에서 구조개혁 추진이 불가피하나, 높은 국가부채가 정책 동력의 걸림돌로 작용
 - * 총리 멜로니와 기획재정부 간의 정책 노선 차이, 그리고 부채 구조 속에서 방위·보건·복지 지출 간 우선순위 조정이 심화될 가능성 상존

□ 환경·보건 관련 세제, '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
 - 당초 '20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경기 침체와 기업 반발로 수차례 연기되었으며, '26년 7월 1일 최종 시행 예정
 - * 플라스틱 사용 포장재에 kg당 € 0.45 세율 부과.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시 면세 적용
 - 정부는 시행 준비를 위해 과세 적용 범위 및 수입업자 납세 절차를 보완 중
 - * EU 내 친환경 전환 정책(순환경제 전략, PPWR 등)과 연계하여 시행 준비 진행 중
- 설탕세(Sugary Drinks Tax)
 - '20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업계 반발 및 물가 상승 우려로 계속 연기된 바 있으나, '26년 1월 시행을 공식화
 - *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해 리터당 € 0.10(캔·병 기준 약 € 0.07~0.08) 과세 예정
 - 정부는 공공 재정 확보 및 국민 건강(비만·당뇨 관리) 목적으로 시행을 예고했으나, 정치적 상황이나 물가 동향에 따라 추가 연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 ESG 관련 규제 : EU 규제 국내 이행 및 법제화 진행

- 이탈리아는 EU 차원의 규제를 국내법으로 이행하여 준수
 -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정보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있음('24.9.)
 -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발효('24.7.)됨에 따라, 이탈리아도 국내 이행 법제화를 준비 중으로, 향후 ESG 실사 및 공급망 관리 의무가 본격화될 전망
 - *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 인권 및 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식별 후, 예방·완화·제거 등 적절한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실사 준수 내용을 연 1회 공시하는 내용으로, 지침 발효일로부터 2년 내 각 회원국이 자국법으로 전환해야 함('27.7.26.부터 단계적 적용 예정)



이탈리아 ESG 동향 : ENI, 디지털 퍼스트 지속가능성 커뮤니케이션 강화

- (기업 정보) ENI는 이탈리아 대표 통합 에너지 기업으로 에너지 전환·탈탄소 전략과 연계해 ‘Eni for’ 등 인터랙티브 디지털 보고서와 웹 플랫폼을 운영하며 CSRD/ESRS 기반 법정 보고와 자발적 스토리텔링을 병행
- (ESG 사례) 온라인 플랫폼·자사 미디어·SNS를 통해 젊은층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지속가능성 성과(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혁신)를 직접 전달하는 디지털 퍼스트 전략 전개
 - ‘Eni for’ 웹리포트, 자사 웹매거진(WE World Energy), YouTube·LinkedIn·Instagram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동영상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Think About Tomorrow(고교생 진로·STEM) 참여, Coding Girls(외부 주관 프로그램 파트너 참여) 등으로 차세대 접점 확대
 - Joule(ENI 창업스쿨), 클린테크 가속화 프로그램(ZERO 등) 및 Open-es(공급망 지속가능성 플랫폼)로 스타트업·밸류체인과의 디지털 협업 생태계 구축
- (시사점) EU의 ESG 규제(CSRD) 준수를 넘어 디지털 소비행태가 맞물려 자사 채널 기반의 직접 소통으로 소비자에게 자사의 기업 이미지 제고와 신뢰 형성에 기여

3. 주요 이슈 Pick

가. 산업 혁신·인프라 확충 : 국가 경쟁력 강화 추진 지속

□ '26년 PNRR 최종 집행 단계 진입으로 프로젝트 진행 가속화

- (배경) '26년 PNRR 최종 완료 시점 도래에 따른 프로젝트 집행 가속화
 - 이탈리아는 EU 회복 기금을 활용해 '21~'26년 동안 총 1,914억 유로 규모의 국가 회복 프로젝트(PNRR)를 진행 중임
 - * 모든 프로젝트는 '26년 8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최종 지급 요청은 9월 30일, EU 집행위의 지급은 12월 31일까지 마무리되어야 함(연장 불가)
 - '25년 8월 EU의 7차 분할금 지급으로 누적 지급액 약 1,400억 유로(전체의 73%)에 도달, 집행 압박으로 가속 진행 중이나 프로젝트 완료율은 약 43~54% 수준
 - * 정부는 일부 자연사업(예 : 고속철 구간)을 대체 프로젝트로 교체하고, 공공투자 비중 일부를 민간 유도형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재프로그래밍 추진
- '26년 PNRR 마감 국면에서는 개별 분야가 아닌 산업 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인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전망
 - 디지털화, 에너지 전환, 교통 인프라, 교육·보건, 도시재생 등 전 분야에서 모두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을 위한 대규모 발주와 민간 참여 확대 예상
 - * 정부는 자연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를 교체·재조정하며 집행을 제고와 EU 기금 소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어, 각 분야별 사업 가속화 추진

'26년 PNRR 산업별 주요 집행 방향 및 기획 요인

분야	주요 집행 방향	기획 요인
디지털 전환	공공기관 클라우드 75% 전환, 전자정부 서비스·사이버보안 강화	클라우드·보안 솔루션, 데이터 관리 시스템
에너지 전환	태양광·풍력·저장장치 확대, 배전망 확충	재생에너지 기자재, 에너지 저장장치(BESS), 풍력 부품
교통 인프라	남부 철도망 공정 마감, 철도 교통 관리 및 신호 시스템 구축	신호·통신·제어 시스템 및 관련 전자 기자재, 시스템 통합 서비스
교육·보건	학교 개보수, 직업교육 강화, 원격의료 확산	친환경 건축자재, EdTech, 의료 IT·기기
포용·도시재생	도시재생, 사회주택, 소도시 관광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솔루션, 관광 인프라 장비

자료: 이탈리아 정부 PNRR(Missione 1~6), EU 집행위원회(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자료), MASE(PNIEC, 2024), RFI 철도계획(2022~26), IMF·OECD 국가보고서 종합

- '26년 연내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집중으로, 에너지·인프라뿐 아니라 보건·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입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 민간 자본 참여 및 파트너십 확대가 병행되면서 현지 기업과의 협력(JV, 컨소시엄 등)을 통한 진출 용이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다만, 단기적으로는 발주 물량 증가에 따른 기회가 존재하더라도 행정 절차의 복잡성, 실 지출 지연, 프로젝트 교체·재조정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

나. 방위·안보 투자 확대 : SAFE 활용과 2035 장기 목표 설정

□ 이탈리아 정부, EU의 SAFE 활용으로 국방비 확대 추진

- (배경 및 내용) 이탈리아 정부, '35년까지 NATO의 지출 목표 달성 추진
 - 이탈리아 정부, EU가 도입한 SAFE를 적극 활용해 중기적으로 국방비를 GDP 대비 2%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3.5%까지 단계적 확대 계획
 - *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유럽안보행동기금) : 총 1,500억 유로 규모로 EU 회원국에 장기·저리 대출 형태로 방위산업 투자 재원을 지원, 이탈리아는 149억 유로 대출 배정('25.9.)
 - 재정규율·국채비용으로 인해 확대 속도와 규모는 조정될 전망으로, 항만·교량 등 이중용도(dual-use) 인프라를 '안보' 범주로 편입해 목표 충족을 병행 추진
 - * '25년 9월 메시나 해협 교량 프로젝트를 '1.5% 안보' 범주에 포함해 방위비 활용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 반대로 제동. '1.5% 안보' 범주는 동맹의 모니터링 강화로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

〈NATO 목표와 재정규율 간 긴장〉

- '25년 헤이그 NATO 정상회의에서는 방위 및 안보 분야 지출 목표를 GDP의 5%까지 확대(3.5% 방위, 1.5% 안보 관련)하는 새로운 합의가 채택됨
 - 현재 이탈리아의 방위비는 GDP 대비 약 1.5~1.6% 수준으로, 이탈리아는 '35년까지 점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
- 그러나 부채 규모와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방위비 확대를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
 - GDP 대비 1.5% → 3% 수준으로 방위비를 확대할 경우, 300~350억 유로 추가 지출이 필요하며, 이는 채무 부담 증가 및 신용등급 하락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수요 확장 측은 전통적 무기 체계 중심에서 통제·보안·감시·지속 운영 등으로 외연이 확대되는 추세
 - 사이버·암호·보안통신, C4ISR·데이터링크, 국경·항만 감시·통제, 전력·통신·철도 등 주요 인프라 보안·감시, 우주·위성 기반 감시, MRO·수명주기 지원 등 다방면에서 수요 증가 전망
 - * GCAP(차세대 전투기), Eurodrone(MALE RPAS) 등 범유럽 공동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이탈리아 기업들의 EU 공급망 참여 기회가 점진적으로 확대

- 하위체계·부품·SW·서비스로 공급망 진입을 추진해 볼 수 있음
 - 대형 체계업체(예 : Leonardo)를 중심으로 한 1·2차 협력망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특정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모듈, 서비스 단위로 진출 가능성이 존재
 - * 이탈리아 현지 기업, AI·자율주행·전기추진·사이버 및 군수시스템 등 전략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모색 중으로 KOTRA 밀라노무역관과 GP 사업을 진행 중
 - EU 차원의 현지 조달 기조가 강화되고 있어,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협력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접근이 필요

다. 고령사회 본격화 : 의료·헬스케어·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

□ 고령인구 25%에 가까워지며 의료·요양 수요 급증과 디지털 헬스 전환 가속

- 고령인구 비중 확대와 요양·돌봄 수요 급증으로 국가 보건 서비스에 대한 투자 강화
 - 이탈리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4.3%(‘25.7. ISTAT)로 유럽 최고 수준에 달하며, 만성 질환 관리, 요양·원격 케어, 의료 자원 전반에 수요 압력으로 작용
 - * ’5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35.6%까지 증가할 전망, ’25년 기준 전체 인구 평균 연령은 46.6세
 - ’25년 예산법에서 국가보건서비스(SSN) 예산을 약 1,365억 유로로 배정,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원격의료, 전자건강기록(FSE), 병상관리 자동화, e-처방 등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 투자가 확대
 - *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보조, 병원 워크플로우 최적화, 의료데이터 통합·분석 등 차세대 솔루션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
- 전통적 병원·요양시설 기기를 비롯해 디지털·지역 커뮤니티·지속 관리 시스템의 수요 증가 전망
 - 원격 모니터링 기기, 전자건강기록(EHR/FSE) 연계 소프트웨어, 병원 자동화 시스템(병상·감염·예약 관리),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요양·재활 보조기기 등 다방면에서 수요 증가 전망
 - *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동화·AI 도입도 투자 우선 분야로 꼽힘
- 정부 예산 증액에 따라 공공병원 입찰 프로젝트 확대 전망
 - 디지털 헬스·AI 솔루션(원격 모니터링, 데이터 통합 분석, 자동화 시스템) 수요 증가로 시장 진입 기회 확대
 - 북부와 남부 간 인프라 격차로 도입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MDR·GDPR 등 인증 요건과 데이터 보안 규제 준수가 필수
 - * 의료기기(MDR)와 개인정보(GDPR) 규제 준수가 필수이며, 환자 데이터의 EU 역내 저장·처리 의무 등 데이터 주권·보안 인증 요건이 강화

라. 노동시장 이중 현실과 소비 양극화 : 구조 전환 압력

□ 청년 실업·구인난 병존, 중산층 축소에 따른 소비 양극화 심화

- 노동 공급 축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며 노동 시장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는 추세
 - '25년 기준 청년(15~29세) 취업·교육·훈련 미참여 청년(NEET) 비율은 16.1%로 EU 평균(11.2%)을 상회, 남부 지역은 25%를 초과('25.1.ISTAT)
 - * 이탈리아 전체 실업률 6.0% 중 청년 실업률 18.7%('25.7.ISTAT)
 - 반면 제조·보건·ICT 등 특정 산업은 구인난이 지속되며, 북·남부 간 지역별 노동 시장 격차 확대로 가계 소득 기반 약화
 - * 임금 불평등, 비정규·저임금 노동 확산 등으로 노동 시장 분절화 현상이 심화, 소득 기반이 약화되면서 중산층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
- 중산층 축소로 내수 시장은 프리미엄 가치소비와 저가 필수재 중심 소비로 양극화
 - 북부 대도시·고령층은 친환경·프리미엄 소비(클린라벨 식품, ESG 제품, 웰니스·여가)를 지속
 - 남부 및 저소득층은 가격 민감도가 높아 PB·중저가 생활재, 온라인 할인 채널 수요가 증가
 - * 분할결제(BNPL), 구독 서비스 등 새로운 결제·소비 형태 확산
- 내수 시장 구조 재편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은 양극화된 수요에 대응할 전략이 필요
 - 북부 대도시에서는 프리미엄·친환경 가치소비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가격 민감 소비층을 대상으로는 합리적 가격대 제품과 온라인 유통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
 - 중간 가격대 제품 수요 축소로 기존 포트폴리오 약화 위험이 있으며, 지역·계층별 소비 성향 차이로 단일 전략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A stylized world map composed of small white dots on a dark blue background, spanning the entire page. The map is centered and shows the outlines of the continents.

Ⅱ.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8
2. 유망 산업	37
3. 협력 기회	44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 선진형 산업 구조와 북부 중심 산업 클러스터(기계·화학·패션·식품)를 바탕으로, 유럽 4대 소비 시장·세계 10대 교역국에 위치
- EU의 규제 및 인증, ESG 요구가 엄격해 진입장벽은 높지만, 규격 대응 시 고부가 소비재·기계/부품·바이오/의약·전력전자·친환경 솔루션 등에서 기회 유망
- 수요·규제 복합 시장 특성상 현지 파트너십·전시회 네트워킹을 통한 단계적 진입이 효과적이며, 북·남부 격차를 고려한 세분화 전략이 필수

가. 시장 특징

□ 선진국형 산업 구조의 고부가가치 산업 발달

- (산업 구조) '24년 기준 3차 산업인 서비스업 73.4%, 2차 산업 24.3%, 1차 산업 2.3%로 선진국형 구조(ISTAT, 2025.9.)
 -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독일에 이어 유럽 내 2위(GDP의 16.3%), 특히 중북부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생산 협력 체제가 발달
 - * 'Made in Italy' 브랜드로 대변되는 높은 품질·기술·디자인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부가가치 창출
 - 농수산업은 낮은 비중을 차지하나, 와인·올리브유·치즈·육가공품 등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 중요한 수출 품목에 위치
- (산업 특징) 북부 지역 중심으로 풍부한 산업 기반이 형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달
 - 지역별로 자연발생적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유기적인 생산 협력 체제가 구축된 것이 특징으로 북부에 풍부한 산업 인프라가 밀집
 - * 인구 36%, 국토 40%를 차지하는 남부 지역의 GDP는 전체의 24%에 불과
 -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전체 제조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며, 프리미엄 소비재(자동차, 가구, 의류, 식품가공)부터 첨단산업(기계, 화학 등) 전반에서 높은 경쟁력 보유
 - * 에너지(ENEL), 항공우주(Leonardo), 제약(Menarini), 조선(Fincantieri) 등 제조업 분야 첨단기술 보유 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산업 경쟁력 견인

• (시장 특성) 지역별로 분절된 유통망과 변화하는 소비 성향

- 유통망은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중소 리테일 중심의 다품목·소량 유통 구조가 특징으로 북부를 중심으로 대형 유통체인·프리미엄 매장이 발달
* 온라인은 구조적으로 성장 중이나 오프라인 네트워크의 지역별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
- 소비 성향은 전통적으로 신중·보수적이지만, 최근에는 저가와 선택적 프리미엄이 공존하는 양극화 패턴이 고착
- 관계 중심의 거래 문화가 강하여 현지 에이전트·딜러를 통한 시장 진입이 일반적이고, 신뢰 구축이 사업 확장의 관건

〈이탈리아 클러스터 현황〉



자료: ISTAT, 밀라노 무역관 편집('25. 9월 자료 기준)

□ 이탈리아 '26년 구매력 및 소비 시장 동향

• 소비 시장 회복은 '완만'하나, 양극화는 '고착'이 심화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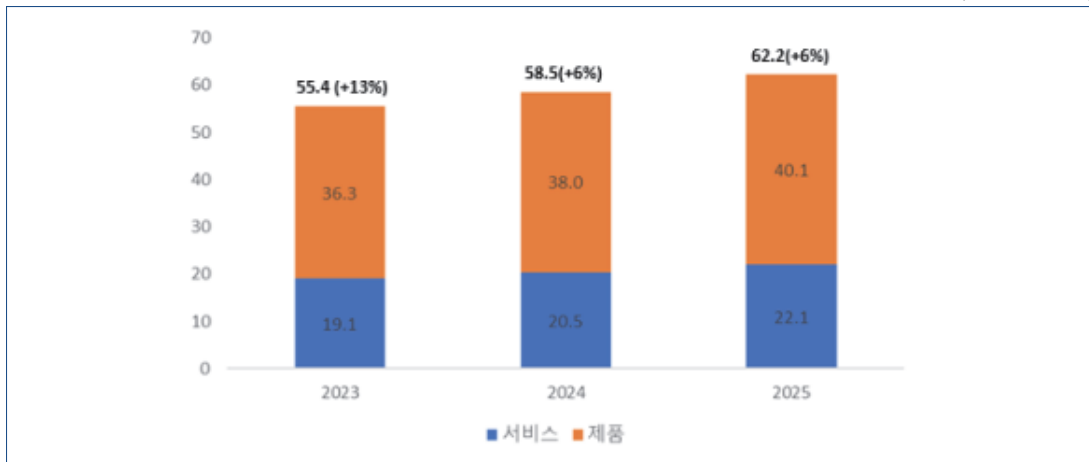
- (소비 시장) 물가안정과 임금·고용 개선으로 가계 실질 구매력이 점진적인 회복세로 '26년 민간소비는 0.7% 성장 전망('25.10. ISTAT)
* '25년 민간소비는 +1.2% 증가 전망, '26년 7월 기준 HICP 물가는 1.7%(전년동월), 핵심물가 2.1%로 안정권
- (동향) 임금은 상승세이나 실질임금 상승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소득 계층별 체감 구매력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 소비 양극화 구조가 고착화되는 추세
* 저소득층에서는 물가 부담과 실질소득 회복 속도 차이로 소비 여력이 더디게 회복 중

- (소비 성향) 보수적 소비 성향 속에서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치소비와 브랜드 신뢰가 구매 결정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으며, 저가와 선택적 프리미엄 소비가 공존하는 투트랙 소비 패턴 고착화

* PB·디스카운트·온라인 유통 채널이 구조적으로 성장 중이며, 대형 유통업체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가격 경쟁이 일상화된 상태

〈이탈리아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

(단위: 십억 유로)



자료: Politecnico di Milano, Osservatori eCommerce B2c 2025

□ EU-이탈리아 시장 진출 주요 인증

- 이탈리아를 포함한 EU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려면 해당 제품군에 요구되는 인증 취득이 필수
 -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장난감, 의료기기 등은 CE 마크 없이는 유통이 불가하며, 관련 지침(저전압 지침, 기계지침, EMC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필수
 - 환경·지속가능성 규제와 관련해, WEEE(전기전자 폐기물), RoHS(유해물질 제한), 에코디자인 지침 등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화학물질은 REACH(등록·평가·허가·제한)와 CLP(분류·표시·포장) 규정을 충족해야 함
 - 포장재 및 플라스틱 사용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26년부터 시행 예정인 플라스틱세와 EU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에 대응한 친환경 라벨링과 재활용 요건 충족이 필수
 - 화장품은 CPNP(화장품 생산 등록 포털)에 제품 정보를 등록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등록 시 현지 책임자(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해야 함
 - 모든 소비재에 이탈리아어 라벨링이 필수로 현지 파트너와 협의하여 적합한 라벨 디자인을 준비해야 함

※ 소비자 품목 이탈리아어 라벨링 필수사항

- 식품 : 성분표,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경고(1169/2011 규정 준수), 유통기한·보관 조건, 원산지 표기 등을 이탈리아어로 기재해야 함
- 화장품 : 용기 및 포장에 제품명, 용도, 용법, 제조사/수입사 정보, 성분 리스트(INCI명), 유통기한(개봉 후 사용기한 포함)을 이탈리아어로 명시해야 함
- 전기전자제품 : EU 에너지 라벨(효율 등급, 연간 소비량 등)을 부착해야 하며, 제품 설명서 역시 이탈리아어 제공 필요

□ (전략적 가치) 유럽 4대 소비 시장이자 세계 10대 교역국

- (경제) 이탈리아의 명목 GDP 규모는 세계 8위(한국 14위), 유럽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에 이은 4위 소비 시장(IMF, '25.9.)
 - 1인당 GDP(명목)는 전 세계 국가 중 26위(유럽 내 18위)로, 한국(31위)보다는 높으나 인근 주요 유럽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총 교역 규모는 세계 10위, 유럽 5위 교역국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 수출 7위, 수입 11위의 개방경제로 한국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현지 파트너십 발굴에 유리

2024년 세계 10대 교역국

(단위: 십억 달러)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국가명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프랑스	영국	홍콩	한국	이탈리아
교역액	6,167	5,328	3,091	1,735	1,450	1,368	1,346	1,340	1,315	1,277

자료: GTA('25년 9월 자료 기준)

- (사업 여건) 이탈리아는 유럽 내 제2위 제조업 강국으로, 고도화된 산업 클러스터와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보유
 -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계·자동차·패션·디자인·식품 등 산업별 클러스터가 발달해 있으며, 숙련된 인력과 협력적 생산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함
 - 밀라노·볼로냐·베로나·제노바 등 주요 도시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 전시회가 연중 개최되어 글로벌 네트워킹과 판로 개척 기회가 풍부
- * 유니카(Unica, 섬유), 코스모프로프(Cosmoprof, 미용), 살로네(Salone del Mobile, 가구·디자인) 등 소비자·산업재 전시회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전시회로 기계·조선·고부가가치 산업의 교류 플랫폼으로 기능

나. 무역

□ 이탈리아 수출입 동향

- (수출 규모) '25년 상반기 기준 수출 감소세 지속
 - '25년 6월 누계 기준 수출 3,208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
 - * 주요 수출 품목은 공업, 원자재, 소비재 등 다양하게 분포
- (수입 규모) 에너지 의존이 두드러진 수입 구조
 - '25년 6월 누계 기준 수입은 2,955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
 - * 석유가스, 석유·역청유 등 에너지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이탈리아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676.8	2.8	674.3	-0.4	320.8	-6.0
수입	639.9	-7.8	615.2	-3.9	295.5	-4.7
무역수지	36.8	흑자전환*	59.1	60.3	25.4	-19.4
총 교역	1,316.7	-2.7	1,289.5	-2.1	616.3	-5.4

* 전년('22년) 무역수지는 적자(-357억 불)였으나, 2023년 흑자(368억 불)로 전환됨. 증감을 산출 불가
자료: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수출국) 전통적 주요 시장은 부진, 신흥국 및 특정 시장으로의 수출은 확대
 - 미국으로 수출이 9% 증가하며 1위 수출국으로 등극. 반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전통적 유럽 주요 시장은 두 자릿수 감소세
 - * 스위스는 +15.1% 증가하며 상위 5개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
- (수출 품목) 바이오·제약 제품 중심 성장, 전통 제조업 품목은 부진
 - 의약품, 혈청 등 바이오·헬스 관련 품목의 호조가 두드러지나,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타 석유·역청유 등 전통 주력 품목은 부진
 - * 伊 부품기업은 지리적 이점 및 가격 우위를 바탕으로 獨 산업기계, 자동차 제조사에 산업기계 및 부품을 납품하는 밸류체인을 형성, 독일 경기 둔화로 해당 수출이 감소

이탈리아 10대 수출국 및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수출국					수출 품목				
순위	국가명	수입액		증감률 ('25.1.~6 ./ '24.1.~ 6.)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25.1.~6 ./ '24.1.~ 6.)
		'24	'25.1.~6.				'24	'25.1.~6.	
1	미국	68,636	38,222	9.0	1	의약품	39,864	24,587	26.5
2	독일	76,136	33,996	-13.8	2	혈청	13,769	8,982	44.6
3	프랑스	66,540	29,103	-15.7	3	자동차	16,165	7,804	-14.3
4	스위스	32,542	18,040	15.1	4	자동차 부품	15,454	6,962	-15.8
5	스페인	37,114	17,651	-5.9	5	주얼리	15,866	6,729	-16.6
6	영국	28,745	14,812	1.6	6	기타 석유·역청유	16,681	6,587	-29.7
7	폴란드	21,040	9,227	-14.9	7	여행 가방	10,382	4,952	-13.1
8	벨기에	20,735	9,197	-13.2	8	벨브, 파이프	9,302	4,537	-2.9
9	네덜란드	20,825	8,881	-15.9	9	금	5,100	3,962	76.1
10	튀르키예	18,844	8,073	-17.3	10	와인	8,801	3,925	-6.5
한국(21위)		6,605	3,085	-9.4	총 수출		674,303	320,822	-6.0

자료: Global Trade Atlas(HS4자리 기준, '25.9.)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수입국) 인근 유럽국을 중심으로 수입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역외국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추세
 - 역외국인 중국(2위), 미국(5위), 터키(10위)로부터의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 유럽국은 감소세
 - * 알제리(11위), 인도(13위) 등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수입 품목) 화학 및 제약 원료 수입 급증 및 소비재 수입 둔화
 - 바이오·제약 원료 의존도가 확대되며 호르몬 및 관련 유도체, 질소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수입이 급증, 반면 자동차, 휴대폰 등 내수용 소비재는 전반적으로 감소세
 - * 석유가스 수입은 증가했으나, 석유·역청유 및 기타 석유·역청유 수입은 감소

이탈리아 10대 수입국 및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수입국					수입 품목				
순위	국가명	수입액		증감률 (‘25.1.~6./ ‘24.1.~6.)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25.1.~6./ ‘24.1.~6.)
		’24	’25.1.~6.				’24	’25.1.~6.	
1	독일	91,630	38,292	-18.0	1	자동차	36,598	16,283	-15.0
2	중국	53,633	33,925	32.7	2	석유가스	25,270	14,678	22.8
3	프랑스	49,253	21,308	-16.0	3	석유·역청유	29,088	12,783	-14.4
4	네덜란드	39,272	17,520	-9.7	4	호르몬 및 관련 유도체	10,078	11,008	114.8
5	미국	27,026	16,387	16.9	5	의약품	18,779	9,310	-0.3
6	스페인	36,644	15,281	-17.6	6	혈청	12,786	6,335	0.5
7	벨기에	28,183	12,765	-8.7	7	질소 헤테로고리 화합물	8,892	4,964	15.9
8	스위스	16,934	8,749	0.6	8	금	10,334	4,882	-4.3
9	폴란드	16,900	7,136	-17.3	9	기타 석유·역청유	11,214	4,357	-18.7
10	터키	13,001	7,060	7.0	10	휴대폰	11,096	4,221	-18.4
한국(21위)		5,665	2,942	3.9	총 수입		615,231	295,461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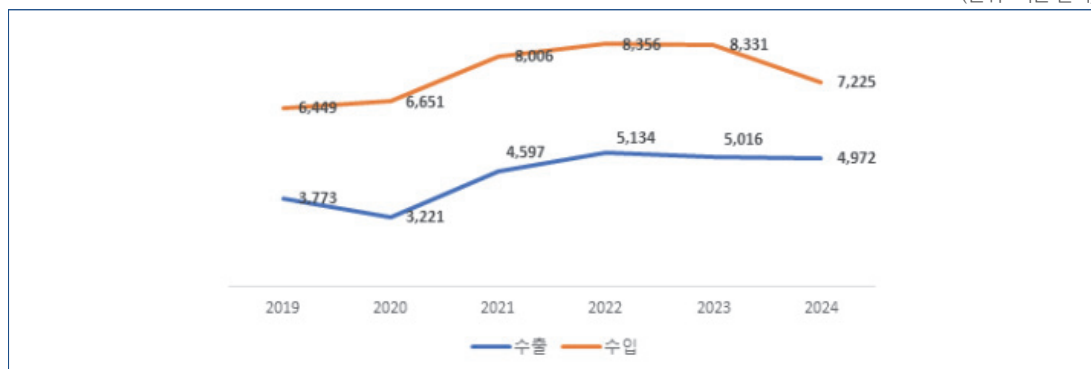
자료: Global Trade Atlas(HS4자리 기준, '25.9.)

□ 對韓 교역 동향

- (교역) 양국 간 교역은 '23년 이후 3년 연속 수출·수입이 모두 감소하며, 전체 교역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

한국의 對이탈리아 수출입 추이('19~'24)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25.10.)

- '25년 9월 누적 기준 이탈리아는 한국의 주요 수출국 중 25위이며, 수입국 중에서는 19위
 - (對이탈리아 수출)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하는 추세로 '24년 49.7억 달러로 소폭 감소, '25년 9월 누계 기준 24.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1% 기록

- (對이탈리아 수입) '23년 83.3억 달러에서 '24년 77.3억 달러로 크게 감소, '25년 9월 누계 기준 56.7억 달러(-3.4%)로 감소세 지속
-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이는 구조이며, 수입액 감소에 힘입어 '24년과 '25년 적자 폭 또한 감소

* 양국의 교역액은 '25년 9월 누계 기준 7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5% 기록

한국의 對이탈리아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누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5,016	-2.3	4,972	-0.9	3,464	-6.1
수입	8,331	-0.3	7,725	-7.3	5,669	-3.4
무역수지	-3,315	2.9	-2,753	-16.9	-2,205	-1.1
총 교역	13,347	-1.1	12,695	-4.9	9,133	-4.5

자료: 한국무역협회('25.10.)

- 주요 수출 품목은 원자재 및 부품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입 품목은 소비재가 강세
 - (수출) 철강·의약품 등 전통 주력 품목은 엇갈린 흐름, 전기차·무선전화기 등 신성장 품목이 급부상
- * 특히 이탈리아의 전기차 판매가 '25년 1~9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함에 따라, 對이탈리아 전기차 수출도 +336.9%로 가파른 성장세 기록

한국의 對이탈리아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9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	4,972.1	-0.9		총 수출	3,463.9	-6.1
1	합성수지	509.8	6.1	1	합성수지	457.9	18.9
2	의약품	460.5	22.8	2	승용차	273.5	10.3
3	열연강판	346.5	-14.0	3	의약품	271.5	-17.5
4	냉연강판	335.3	60.4	4	열연강판	237.8	-11.7
5	승용차	312.3	0.6	5	냉연강판	180.1	-31.4
6	선박	266.0	1.7	6	기타자동차	152.3	-19.4
7	기타 자동차	231.6	5.5	7	무선전화기	91.8	4,603
8	금속절삭가공기계	131.1	-29.4	8	타이어	89.7	-8.7
9	타이어	130.2	7.9	9	전기자동차	86.1	336.9
10	축전지	114.7	8.8	10	기타 정밀화학원료	70.0	33.3

자료: 한국무역협회(MTI4단위 기준, '25.10.)

- (수입) 가방·신발·의류 등 소비재 수입이 전반적으로 부진, 대신 기계·부품, 주얼리, 의약품 등이 증가세를 견인

* 원동기(+105.5%), 펌프(+74.1%)가 크게 증가하여 기계·설비류 수입 확대세가 뚜렷

한국의 對이탈리아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9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	7,724.7	-7.3		총 수입	5,668.8	-3.4
1	가방	1,205.2	-18.8	1	가방	758.3	-18.1
2	의약품	495.1	6.5	2	의약품	389.4	3.0
3	직물제의류	468.1	-8.9	3	주얼리	357.6	17.4
4	주얼리	408.2	15.5	4	직물제의류	305.6	-12.4
5	신발	403.5	-24.1	5	원동기	286.9	105.5
6	편직제의류	308.2	-14.1	6	신발	254.2	-18.1
7	승용차	251.9	-2.8	7	편직제의류	195.1	-15.5
8	원동기	157.9	90.8	8	펌프	108.5	74.1
9	타일	141.8	17.4	9	낙농품	98.7	22.2
10	나프타	123.5	-21.2	10	식물성 유지	92.8	38.1

자료: 한국무역협회(MTI)4단위 기준, '25.10.)

- 한국은 이탈리아의 수입국 21위, 수입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00% 수준
 - 수출 핵심 품목 구성은 과거 철강·화학소재 중심에서 자동차, 반도체·ICT,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등 고부가·첨단·소비재로 다변화되는 추세
 - 첨단 완성재 및 소비재 중심으로의 전환과 함께 K-드라마·K-팝 등 한류 콘텐츠 확산이 이탈리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의 문화적 친밀도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이탈리아 주요 수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이탈리아 진출 전략 : P사(이탈리아 B사와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피부과학 기반의 R&D와 천연 유래 성분을 활용하여 고기능성·저자극·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 개발
 - 피부 진정 및 재생 효과가 입증된 특허 성분, 밀착력·보습력이 뛰어난 시트 소재, 친환경·비건 인증 원료 사용을 통해 글로벌 소비자 요구 충족
- 필수 인증 : CPNP 등록
- 성약 소요 기간 : '24년 10월 한국관 참가 확정 → '25년 3월 전시 현장 상담 및 계약 체결(약 6개월 소요)
- 바이어 발굴 경로 : 밀라노 무역관 네트워크를 통한 타깃 바이어 사전 발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전시회 사전 매칭 상담을 통해 이탈리아 유력 바이어 B사와 성약이 이뤄진 사례로, 유럽 주요 전시회 (Cosmoprof) 참가를 통해 바이어와의 신뢰 구축 및 심층 상담 기회 확보가 가능
 - 제품 경쟁력에 더해, 무역관의 체계적인 단계별 지원(사전 홍보 → 산업 정보 제공 → 현장 배석·통역 → 계약 조율)이 결합되어 성공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음
 - 이러한 전략은 향후 K-뷰티 기업들이 유럽과 이탈리아 내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평가



성공 사례로 보는 이탈리아 진출전략 : B사(이탈리아 P사와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B사는 에스테틱 필러 전문기업으로, 피부 안전성 및 효과가 입증된 고품질 제품 보유
- 필수 인증 : 필러는 유럽 의료기기(Class III) 관련 규제 충족 필요(CE, 이탈리아 보건부 등록)
- 성약 소요 기간 : 약 1년 소요
- 바이어 발굴 경로 : 밀라노 무역관, '24년 Agora 에스테틱 박람회 현장에서 Pharma Titano 발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동 바이어는 보톡스에 관심이 높았으나, 무역관 담당자가 보톡스·필러 인증 차이를 전략적으로 설명하여 바이어가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한 제품(필러)'에 집중하도록 유도한 점이 주요
 - 지사화 사업을 통해 준비된 기업을 적시에 매칭, 바이어의 신뢰도와 거래 가능성을 높임
 - 또한, 붓입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상담과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도록 해 '사전 시장 분석, 맞춤형 기업 연결, 현장 밀착 지원'으로 지사화 기업의 성공적인 수출 수행



성공 사례로 보는 이탈리아 진출전략 : H사(현지 D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H사는 AI 기반 산업용 드론 전문기업으로, 설비 점검·산업 인스펙션 특화 기술을 보유, 현지 드론 제조사 대비 AI 통합·정밀 분석 기능에서 경쟁력 확보
- 필수 인증 : 드론은 CE 인증 및 항공안전 규제(EASA 기준) 충족 필요
- 성약 소요 기간 : '24년 10월 박람회 참가 → '25년 3월 첫 수출(약 6개월 소요)
- 바이어 발굴경로 : '24년 10월 볼로냐 DronItaly 전시회 참가, 무역관을 통해 현지 드론기업 D사 발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이번 사례는 전시회 현장 상담 → 후속 협의 → 파트너십 체결 → 초기 수출로 이어진 수출 성공 모델
 - 특히 기술 기반 제품의 경우, 단순한 전시 참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후속 협의 관리와 신뢰 구축, 현지 네트워크 연결이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 밀라노 무역관은 전시회 매칭부터 온라인 전략회의 주관, 파트너십 성사까지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빠른 성약과 초기 수출로 이어지도록 기여

□ 주요 경쟁국 동향

- 한국 점유율은 소폭 상승세로 이에 따라 수입국 순위를 높여가고 있음
 - 중국은 '25년 상반기 점유율이 크게 확대. 또한, 베트남은 EU-베트남 FTA('20.8 발효) 이후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며 한국과 유사한 수준에 근접
 - * 일본은 수입 시장 점유율 0.8~0.9% 수준에서 정체된 모습으로 큰 변화가 없음

이탈리아 수입 시장 내 한국 및 경쟁국의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국가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중국	8.74(2위)	8.22(2위)	8.72(2위)	11.48(2위)
일본	0.80(30위)	0.92(26위)	0.77(28위)	0.82(26위)
한국	0.91(24위)	0.97(25위)	0.92(23위)	1.00(21위)
베트남	0.73(32위)	0.75(30위)	0.80(25위)	0.96(23위)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9월)

□ 이탈리아의 대외 수입 규제, 對韓 수입 규제 등

- 이탈리아는 EU의 규제를 따르고 있으며, 별도의 자체적인 규제는 없음
 - 수입상품에 대한 인증, 반덤핑과 상계관세, 기술규제(TBT) 등은 모두 EU의 공통 규제를 따르고 있음
 - * 군사장비, 특정 화학물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수입 허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품은 이탈리아 정부 혹은 EU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 가능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위조상품 수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수입 시 몰수 또는 파기됨
- 유럽 시장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요구가 높아져, 친환경 포장재 사용, 탄소발자국 표시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 ISO 14001(환경경영) 인증이나 제품의 유럽 친환경 마크(Ecolabel) 등 친환경 인증이 마케팅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다. 산업

□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제조업 강국이자 서비스업 발달

- 이탈리아 경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함께 국가 경제의 근간을 형성
 - 관광산업은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대표적인 서비스업으로 기능, 제조업은 독일에 이어 유럽 내 두 번째 규모임
 - 기계류·자동차·의약품·귀금속 등 다양한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틈새 전문 분야를 확보하고 있음
 - * 패션·의류, 가족제품, 식품 산업은 “메이드 인 이탈리아(Made in Italy)”의 대표적 소비재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
 - 에너지 분야에서는 Eni(석유·가스), Enel(전력·재생에너지) 등 글로벌 기업을 보유,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뒷받침

(참고) 최근 이탈리아 주요 산업의 전체 수출 비중 추이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HS	산 업	비 중	HS	산 업	비 중	HS	산 업	비 중
84	기계류	17.2	84	기계류	17.2	84	기계류	16.4
87	운송기기	8.0	30	의료용품	8.2	30	의료용품	10.8
30	의료용품	7.4	87	운송기기	7.0	87	운송기기	6.7
85	전기기기	6.6	85	전기기기	6.8	85	전기기기	6.3
27	광물성 연료	4.0	71	귀금속	3.8	71	귀금속	4.1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9월)

□ 현지 주요 산업 최근 동향

- (서비스) '25년 상반기 이탈리아 경제는 관광, 금융·디지털 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이 경제 회복을 주도하며 제조업 부진을 상쇄
 - (관광)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관광수요의 회복으로 주요 관광 도시를 중심으로 숙박, 외식업, 쇼핑, 차량 서비스 등 연관 산업의 성장으로 고용 창출
 - * 이탈리아 관광산업은 '25년 기준 GDP의 약 11%에 해당하는 237.4억 유로 규모로 집계, 이탈리아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 지출은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0.4억 유로 전망('25. WTTC)
 - (금융) 핀테크 및 디지털 결제 시장은 PSD2* 확산, SEPA 인스턴트 송금 도입 등 제도적 기반 확대와 함께 꾸준히 성장 중임
 - *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 제2차 지급서비스지침) : 은행의 결제 정보를 핀테크 기업에 개방해 오픈뱅킹을 촉진하고 결제서비스 경쟁을 강화한 규제

- (기계·로봇 산업) 이탈리아는 독일에 이어 유럽 2대 기계 품목 수출국으로, 공작기계·포장기계·식품 가공기계 등 특화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
 - 전체 수출의 약 17%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이탈리아는 세계 5위권 기계 수출국의 위상을 유지
 - * 주요 기계 수출국 : 중국, 독일, 미국, 일본, 이탈리아('25. ITA)
 - 정부는 '전환 5.0(Transizione 5.0)' 정책을 통해 기업의 디지털·자동화·에너지 전환 투자를 장려, 투자액의 최대 45%까지 세액공제를 지원
 - * 전환 5.0(Transizione 5.0) : 총 63억 유로 규모(2024~2025년 집행)의 세제 혜택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효율화·친환경 설비·재생에너지 전환 투자까지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동시에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미국의 대EU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기계·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양측 협상('25.7.27.) 결과 단기 충격은 완화된 상황
 - * '26년 세계 경제 회복세 전환 및 인플레이션 둔화, 유럽 등 주요 시장의 내수 회복 등으로 기계·로봇 산업이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
 - 글로벌 경기 반등과 정책적 지원, 스마트 제조 및 자동화·IoT 확산이 맞물리면서 기계·로봇 산업은 생산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다만 에너지 비용 부담, 기술 인력 부족은 중소기업 중심 산업 구조에서 지속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자동차·자동차 부품)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생산 위축과 공급망 리스크 확대
 - 스텔란티스, '25년 상반기 이탈리아 내 생산량은 전년 대비 -27% 감소(22만여 대)하며 국내 생산 시설에 노동 시간 단축 조치 시행
 - * 정부는 스텔란티스에 국내 생산량을 100만 대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으나, 스텔란티스는 일부 주력 모델을 폴란드로 이전하며 정부와 갈등 지속
 - 이베코는 총 55억 유로 규모 투자 유치와 고용 유지 조건을 확보하며 군수·상용차 부문 매각으로 산업 재편 중
 - * 군수 부문(17억 유로)을 이탈리아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에, 상용차 부문(38억 유로)을 인도 타타모터스에 매각 추진 중
 - 북부 이탈리아 자동차 부품 산업은 독일 완성차 업체와 긴밀한 밸류체인을 형성, 독일 자동차 산업 부진과 전기차 전환 지연으로 부품 수주와 생산이 동반 부진
 - * 對독 부품 수출 감소는 롬바르디아·피에몬테 지역 제조업 전반의 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
 - (전기차) '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배출가스 규제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을 시행 중이나, 신차 기준 약 5%의 보급률로 여전히 EU 평균(15.4%)에 못 미치고 있음
 - * 중국산 EV의 저가 공세와 EU CO₂ 규제 강화 속에서 전환 대응 지연이 겹치며 산업 전반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

- (전기기기·반도체) 제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중간재 산업으로, 전력 장비·가전 부품·전선 등과 함께 반도체가 전략적 품목으로 부상
 - 이탈리아는 독일, 프랑스에 이어 유럽 내 전기기기 수출국 중 상위권으로, 전체 수출의 약 6.7%를 차지하며 기계·자동차·제약과 함께 주요 수출 품목군을 형성
 - * 전기기기 산업은 완제품보다는 기계·자동차·로봇 등 주력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부품·중간재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전기차 확산과 맞물려 성장 수요가 확대
 - 정부는 초소형 전자공학 분야에 4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 이 중 5억 유로를 반도체 분야에 배정해 R&D와 생산설비 투자를 지원
 - * '30년까지 세계 시장 반도체 점유율을 10%에서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
 -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TM) 중심으로 SiC 전력반도체 및 집적회로 분야에서 유럽 내 경쟁력을 확보 중, 'EU Chips Act'와 연계해 지원이 강화
 - * '24년 EU 집행위는 총 50억 유로 규모의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TM) 카타니아 신공장 프로젝트에 20억 유로의 보조금을 배정, SiC 통합 칩 제조를 추진
 - (기업 투자) '24년 3월 싱가포르의 Silicon Box사가 32억 유로의 투자로 이탈리아에 새로운 생산공장 건설을 발표, '25년 EU의 13억 유로 보조금 승인으로 착공 예정
 - * Silicon Box는 칩렛 통합 고급 패키징 테스트 기술 전문 기업으로 '28년 시범 생산, '33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며, 첨단 패키징 기술을 유럽 내에 본격 이전할 전망
 - 전통적으로 대기업 기반이 약한 분야로, 정부와 EU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보조금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美 통상정책 및 아시아 공급망 의존도는 잠재적 부담 요인
- (섬유·패션) 이탈리아는 고급 소비재 분야 세계 선도국으로, 패션·액세서리·럭셔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음
 - 전통적인 장인 기술 축적과 선진기술 도입으로 자국 브랜드의 글로벌화에 성공하였으며, 패션 및 패션 액세서리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 보유
 - 수출 주도형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중국·프랑스 등으로, 세계 패션 허브(밀라노, 피렌체)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킹 효과가 큼
 - (트렌드) 친환경·지속가능 패션이 주요 흐름으로, 재활용 섬유·에코퍼·천연섬유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디지털 패션·온라인 런웨이 등 신유통 플랫폼 활용도 증가
 - 노동비용 상승, 경기 둔화에 따른 중저가 소비 확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간 경쟁 심화는 산업 전반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식품) 이탈리아 제조업 내 2위 산업으로, 와인·올리브유·치즈 등 프리미엄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이 뚜렷
 - 제조업 내 비중이 약 10%로, 전통적인 가공식품과 프리미엄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
 - * 수출은 주로 미국·독일·프랑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 시장에서도 수요 증가
 - (트렌드) 건강·유기농·웰빙 식품, 단백질 대체식품, 채식주의 확산이 주요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형 유통망 PB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는 양극화 소비 현상도 뚜렷

- 기후 변화·원자재 가격 상승이 원가 부담을 높이고 있으며, EU 차원의 환경·안전 규제 강화가 기업의 수출 비용 요인으로 작용
- (화장품) 한류 문화 확산과 함께 현지 시장에서 K-Beauty 제품 입지 확대
 - '24년 이탈리아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146억 유로로 '30년까지 연평균 4~5% 성장 전망 (Cosmetica Italia)
 - * 스킨케어(피부관리 제품)가 전체의 약 42%, 메이크업 18%, 향수·향료 25%로 구성되며, 자연·유기농·비건 화장품 수요가 빠르게 성장 중
 - (트렌드) K-팝·드라마 등 한류 확산을 통해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 제고
 - * 세계 최대 뷰티 박람회인 Cosmoprof에서 현지 언론 및 박람회 관계자들은 K-팝·K-드라마로 인한 한국문화 호감도 상승이 K-뷰티 부스 방문 및 거래 증가로 이어졌다고 평가
 - 디지털 채널·온라인 유통 확산으로 D2C 브랜드 진출 용이성이 확대, K-뷰티 전문 편집숍 및 세포라·더글라스 등 유통망 입점이 확대되며 수요 증가
 - * 한국은 이탈리아 화장품 수입국 12위로, '24년 수출 5,800만 달러, '25년 1~6월 누적 2,700만 달러(+8.2%) 기록('25.9. GTA)

라. 투자

□ 외국인 투자 동향

- 이탈리아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팬데믹 충격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
 - '22년 FDI 유입 규모는 약 313억 달러, '23년은 326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4년에는 약 247억 달러로 감소하며 흐름이 둔화됨('25.9. OECD)
 - * 팬데믹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철수·회수가 신규 유입을 상회하면서, '20년 -209억 달러, '21년 -16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한 이후 점진적 회복 추세
 - '25년 1분기 글로벌 FDI가 전년 대비 약 15% 감소한 반면, 이탈리아는 21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233% 급증, 단기적 반등세를 보임
- 투자 프로젝트 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 편중은 여전
 - '24년 이탈리아 내 FDI 프로젝트 수는 214개에서 224개로 증가하며(+5%) 유럽 평균 감소 추세(-5%)와 대비됨('25.9. EY Attractiveness Survey 2024)
 - 주요 투자국은 미국, 프랑스, 영국, 스위스 순이며, 중국 투자 비중은 최근 2%에서 약 5%로 증가 추세
 - 지역별로는 북부·중부 중심 투자 유치가 강세이며, 남부 지역은 여전히 절대 투자 규모가 작으나 국가 세제 인센티브와 세액공제 정책을 통해 유치 강화
- 그러나 투자 환경에는 제약 요인도 상존
 - 높은 조세부담률, 복잡한 행정 및 사법 절차, 경직된 노동 시장 구조는 외국인 투자 진출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

- 이탈리아의 법인세율은 기본 24%이나, 지역세(IRAP) 및 기타 부담까지 포함한 실효세율은 약 27.8% 수준
* 伊기업의 총조세 및 부담률은 52.5%로 OECD 상위국 평균인 34.1%보다 약 20% 높음(EY, '25.9. 기준)
- 정부는 Mini-IRES(신규 고용·설비 투자 기업 대상 세율 20% 적용) 등 세제 완화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체계적 인센티브 부족은 여전히 한계 요인으로 작용

□ 현지 주요 투자 유치 산업

- 전통적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산업·인프라 분야로 다변화
 - 제조업(기계·의약·패션·자동차 부품 등) 분야는 전체 FDI 잔고의 약 29.1%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유지
 - 물류(항만·공항·센터), ICT/디지털 인프라(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재생에너지 및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외국인 투자 활발
* '25~26년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가 약 100억 유로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Microsoft, AWS 등의 대형 클라우드 기업 유치 기대('25.9. 밀라노 폴리테크닉 보고서)
 - EU 공급망 내재화, 녹색·디지털 전환 정책과 맞물려 첨단 제조업 및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가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주요 경쟁국(중국, 일본 등)의 현지 투자 유입 동향

- '24년 중국의 이탈리아 투자는 12.7억 유로로 전년(7.9억 유로) 대비 증가(이탈리아 외무·국제협력부 경제관측소 MECEI, '25.9.)
 - 대형 M&A는 골든파워 심사 강화로 제약이 큰 상황, 그린필드·확장형 투자(전자·재생에너지·전기 모빌리티·물류/전자 등) 위주로 진행
* 이탈리아의 일대일로(BRI) 종료 이후, '24년 하반기 양국 협력 재가동 의지 표명(전기이동성·재생에너지 등 실무 협력 분야)으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은 유지
- '24년 일본의 對이탈리아 투자는 3.4억 유로로 전년(2.1억 유로)에서 확대(이탈리아 외무·국제협력부 경제관측소 MECEI, '25.9.)
 - 설비·부품·소재 중심의 추가 투자와 운영 효율화형 증설이 다수 니치 제조·부품 부문에 집중
* 유럽 공급망 재편(전력전자·배터리 소재·고급제조)에 따라 전략적 투자

□ 이탈리아의 對韓 투자 현황

- 이탈리아의 對한 투자는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보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으로 확대
 - '25년 1~6월 누적 기준 이탈리아의 對한 직접 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4.5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
* '24년 신고금액 1억 4천만 달러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임

이탈리아의 對한 직접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Q.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45	19	48	14	55	25	137	16	447	1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 한국의 이탈리아 투자 진출

- 대기업 중심, 판매·서비스 법인 위주의 진출 구조
 - 한국의 이탈리아 진출은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대부분 판매법인 및 서비스 법인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음
 - * 주요 진출 기업으로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상선,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포스코 대우, POSCO ITPC,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패션), 삼성SDS, LG전자, LG화학, 한화에너지, 효성, 대한항공, 이노션, 제일기획, 코오롱글로벌 등이 활동 중
- 투자 진출 형태 및 업종 다변화 추세
 - 과거에는 의류, 무역업, 자동차, 전자 등 전통적인 소비재 및 산업재 중심으로 현지 판매법인·지사 설립을 통한 시장 개척이 일반적이었음
 -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분야(한미약품, 셀트리온 등)의 진출이 확대되며, 유럽 시장 판로 개척 및 현지 연구개발 거점 확보로 사업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음
 - 또한 M&A를 통한 현지 제조업 및 판매법인 진출도 늘어나는 추세로, 업종 및 진출 방식이 판매 중심에서 제조·연구개발·M&A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이탈리아 내 사업 기반은 점차 확대
 - * S사와 P사는 현지 제조기업을 인수해 제조 거점을 확보, C과 D사는 현지 판매법인 인수로 유럽 내 입지를 강화

한국의 對이탈리아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Q.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투자금액	113	88.3%	45	-60.2%	24	-46.7%	8	-
신규 법인 설립 건수	12	20%	6	-100%	9	50%	3	-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 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C사, 바이오시밀러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C사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으로, 유럽·미국 등 선진 제약 시장에서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고 있는 한국 대표 바이오기업
- (성공 사례) 이탈리아 밀라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마케팅 조직을 구축하여 바이오시밀러 중심의 공공 입찰 시장에 본격 대응
 - '23년 하반기부터 항암제 바이오시밀러의 직판 체계를 본격화하여 공공 조달 시장 진입을 가속화
 - 단순 수출에서 벗어나 현지 법인을 기반으로 한 직접 판매 체계로 전환, 브랜드 영향력 확대 및 매출 실적 증대
- (시사점) 현지 법인 설립은 단순 공급자가 아닌 시장 관리 주체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 전략적 진출 방식으로 공공 조달 중심의 이탈리아 의약품 시장 특성을 고려해, 직접 판매 및 브랜드 관리 체계 확보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S사, 유럽 체외진단 시장 확대를 위한 현지 기업 M&A

- (기업 정보) S사는 체외진단(IVD) 전문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신속진단·분자진단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 대표 진단기업
- (성공 사례) 유럽 시장 확장을 위해 이탈리아 체외진단 유통사 R사 지분을 100% 인수, 현지 유통망을 전격 강화
 - 이탈리아는 유럽 체외진단 시장에서 독일·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의 시장으로, S사의 신속 분자진단 기기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국가
 - 현지 기업 M&A를 통해 유통망 확대, 시장 접근성 강화, 다양한 제품군의 판매 채널 확보에 성공
- (시사점) 현지 기업 인수는 단기간 내 유통망과 영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장 진출 전략으로 유통망 진입장벽이 높은 국가일수록 M&A 방식의 진입이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유리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복잡한 노동법 체계와 경직된 인력 운용 구조가 부담 요인
 - 이탈리아는 EU 내에서도 근로자 보호 제도가 강력하여, 고용 계약 및 해고 절차가 복잡하고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이 낮음
 - * 해고 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소송 발생 시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외국 기업에는 큰 부담 요인
 -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산별 단위 단체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CBA)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외국 기업 역시 동일한 규제를 따라야 함
 - 청년층 실업률은 여전히 높으나 숙련 기술 인력 확보는 쉽지 않아, 기계·ICT·바이오 등 특정 산업에서는 구인난이 병존하는 이중적 구조가 나타남



이탈리아 취업 비자 및 인력 파견 유의사항

- 이탈리아 취업 비자 발급 절차에 따른 애로
 - 이탈리아 취업 비자 신청에서 취득까지 6~8개월이 소요되기에 현지에 진출한 지사로 직원 파견, 한국인 채용 시 애로사항 다수 발생
 - 비EU국민이 이탈리아에서 합법적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 비자를 받고 이탈리아에 입국 후 노동 가능한 체류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함
 - 발급 절차는 ① 놀라오스타* 신청 및 발급(4~6개월) → ② 대사관에 비자 신청 및 발급(1~2개월) → ③ 현지 체류 허가 신청 및 발급(4~6개월)의 절차 필요
 - * 놀라오스타 : 이탈리아 내무부 산하 SUI(출입국 관리소)에서 발급하는 입국허가서로 고용주의 회사 재정 및 운영 상태, 비고용인의 자격 요건 등 심사를 통해 발급. 기준 미달 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
 - 현지 법인으로 직원 파견 혹은 한국인 채용시 해당 내용을 고려해 사전에 준비해야 함

- 내외국인 동일 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제한은 없으나 투자 진출 계획 시 투자 규제 및 금지 업종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탈리아는 국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업종 및 국가의 전매사업 분야 진출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함 (통신업, 금융업, 철도, 우편업 등)
 - * 국영기업이었던 기업의 자본 참여 혹은 매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규제 적용 가능성이 있음
- 국내 주요 산업의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 이탈리아의 외국인 투자 심사는 이탈리아 총리실(Presidenza del Consiglio dei Ministri)이 주도. 국방부, 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심사를 진행
 - * 기본적으로 투자 심사 기간은 45일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최대 75일로 연장
 - 기존 전략 산업인 금융, 식품, 에너지, 통신, 방산 분야 외에도 수자원, 보건, 방송, 데이터 처리 및 저장 등 전략산업 분야를 확대해 외국인투자심사를 강화하고 골든파워*의 적용 범위 확대
 - * 골든파워(Golden Power)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가 국가 전략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
 - * '25년 7월 Tata Motors가 이탈리아 상용차 기업 IVECO 상용차 부문 지분 인수 계획(약 38억 유로)을 발표,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고용 유지와 핵심 기술 보호를 이유로 골든파워에 따라 거래 승인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

2. 유망 산업

가. 재생에너지

□ '50년까지 완전한 탈탄소화를 목표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

- 이탈리아 재생에너지 시장, '32년 476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 전망
 - '24년 이탈리아 재생에너지 시장은 약 218억 달러로 '26~'32년 연평균 10.2% 성장 기대('25.9. Verified Market Research)
 - 이탈리아 정부, PNRR와 연간 예산안, 유럽연합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 및 투자를 진행
 - * '24년 승인된 재생에너지 혁신·육성 국가지원 계획으로 '28년까지 연간 18.5억 유로 규모 집행, 이와 별도로 송전망 인프라 구축에 10년간 230억 유로 투자 집행 예정
- 에너지 저장(BESS) 시장 확대
 - '25년 9월부터 MACSE* 제도를 통해 1차 10GWh(최대 15년 계약) 입찰 시행, '30년까지 누적 50GWh 단계적 확대 목표
 - * MACSE(Meccanismo di Approvvigionamento di Capacità di Stoccaggio Elettrico, 전력저장 용량 조달 메커니즘) : 대규모 전력 저장 장치(ESS, BESS) 확보 제도
 - 유틸리티 규모의 저장 장치 투자 여건 개선으로 민간·외국 기업 참여 확대 전망
 - * Enel, Terna, ENI 등 주요 기업이 대규모 BESS 프로젝트 개발에 착수하며, 재생 발전의 변동성 보완과 전력망 안정화 수단으로 저장 시장의 전략적 가치 부각
- 이탈리아는 '50년까지 완전한 탈탄소화를 목표로, '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의 40.5%, 전력 부문은 7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계획
 - '24년 신규 재생 7.48GW(+29%), 누적 76.6GW(태양광 37.1GW, 풍력 13GW, 수력 21.6GW 등). '24년 재생발전은 전력 수요의 41.2%를 충당
 - * 태양광은 '24년 6월 8GW 신규(전년 대비 +30%), '25년 상반기 2.33GW 추가로 고성장 지속
 -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을 위해 재도입 논의 본격화
 - * '50년까지 전력소비의 11%를 원전으로 충당 목표. '27년까지 법적·제도적 기반 완비, '30년대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가동 추진

이탈리아 에너지와 기후 통합 계획 신재생에너지 목표

(단위: ktep, %)

	2020년	2021년	2025년	2030년
총 소비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21,900	22,934	31,554	43,038
- 전기	10,176	10,207	13,545	19,580
- 수송	10,378	11,176	14,519	19,038
- 난방	1,346	1,552	3,490	4,429
총 소비 에너지	107,572	120,506	114,655	106,331
신재생에너지 비중	20.4	19.0	27.5	40.5

주: ktep=kiloton of oil equivalent

자료: RSE, GSE

• 주요 품목의 최근 수출입 동향

- 재생에너지 관련 품목은 수출 비중이 미미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음.
- 태양광 모듈/셀(HS 854143) : '24년 수입 12.4억 달러, '25년 1~6월 수입은 3.9억 달러(-37.5%)로 감소세 지속
 - * 주요 수입국 : 중국,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독일 순이며 한국은 수입국 26위('25.9. GTA)
- 인버터·전류장치(HS 850440) : '24년 수입 25.3억 달러, '25년 1월~6월 수입은 11.1억 달러(-16.4%)로 감소
 - * 주요 수입국 : 독일, 중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순이며 한국은 수입국 34위('25.9. GTA)
- 리튬이온 배터리(HS 850760) : '24년 수입 20억 달러, '25년 1~6월 수입은 5.8억 달러(-59.2%)로 큰 폭으로 감소
 - * 주요 수입국 : 중국, 독일, 네덜란드, 헝가리 순이며 한국은 수입국 7위('25.9. GTA)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이탈리아 재생에너지 시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

- 해당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함께 송전망 확충·에너지 저장 투자·디지털 전환을 전략축으로 삼고 있음
 - * Enel은 발전·판매·저장을 아우르는 통합 모델을, Terna는 송전망 및 대규모 저장 연계를, ENI는 재생+분산형 에너지 솔루션을 강화하면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
- 현지 재생에너지 산업은 다국적 기업·현지 EPC·중소 부품업체가 공급망을 구성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자와의 합작(JV)·파트너십을 통해 프로젝트 자금 조달과 기술 협력이 확대되는 추세

이탈리아 재생에너지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En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27년 총 €430억 투자, 이 중 그리드 €260억(+40%)로 상향하며 재생·고객 솔루션을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CSE(에너지 저장) 1차 10GWh 입찰('25.9.) 대비 대규모 BESS 개발 준비 - 재생 대규모 연계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접속 요청 42GW)에 대응해 배전망 자동화·혼잡 해소 투자를 가속 * 스페인에서 Masdar와 446MW 태양광 운영자산 거래로 포트폴리오 최적화·파트너십 심화
TER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34년 10개년 개발계획에 총 €230억 이상 투자를 계획, 전년 계획 대비 약 10%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추가 70GW 재생 연계 수용 목표, 남북 간 송전 병목 해소 및 계통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확충 * 디지털·스마트그리드 전환 : 실시간 모니터링, 수요 응답(DR), 계통유연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 병행
ENI/Plenitu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6월 기준 재생에너지 운영자산 4.5GW, '28년까지 10GW, '30년까지 15GW 달성을 목표로 포트폴리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내 태양광·풍력 확충과 함께 EV 충전, 소규모 저장장치, 스마트빌딩 솔루션을 통합 제공

자료: 기업 홈페이지 및 무역관 자체 조사

- 프로젝트 직접 진출, 현지 기업 부품 공급 등 다양한 사업 진행
 - 한국 기업의 EPC(설계·조달·시공) 역량 활용으로 현지 프로젝트 직접 수행
 - * H사, 이탈리아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 진행 및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 참여 준비
 - 현지 전력망 현대화 핵심 파트너사에 장기 부품 공급 계약으로 시장 진출
 - * V사, '24년 스마트미터기 핵심 공급업체 PF사에 2년간 리튬이온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 기타(향후 전망, 기회 요인 등)

- '30년까지 재생 전력 비중을 70%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송전망·저장·디지털 솔루션 수요가 급증할 전망
 - Enel·Terna·ENI 등 주요 기업이 대규모 BESS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면서 배터리 셀·모듈, PCS, EMS 등 한국 중소기업 특화품목의 진입 가능성 확대
 - EU·이탈리아 모두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고효율 부품·소규모 스마트 솔루션 등 틈새시장형 수출 기회가 많음

나. 의료기기·디지털 헬스

□ 고령화 심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의료기기 수요 확대

- 이탈리아 헬스케어 시장, '25년 1,886억 달러 시장 전망
 - 이탈리아 헬스케어 시장은 '25~'30년 연평균 2.3%로, '30년에는 약 2,117억 달러에 이를 전망('25.9. STATISTA)
 - * '25년 1인당 3,190달러의 헬스케어 서비스 지출 발생,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중 24% → '30년 27% 전망)와 만성질환 증가가 수요 확대의 주요 요인

- 이탈리아 정부는 PNRR(이탈리아 복원 및 회복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병원 인프라 현대화, 원격진료 플랫폼에 약 156억 유로를 배정

* 프로젝트 집행률 : 보건 미션 19.3%(‘25.3.31.), PNRR 전체 38.22%(‘25.5.31.)

- **의료기기·디지털 헬스 투자 확대**

- EU 차원의 IPCEI-Health에 따라 이탈리아는 AI 기반 의료영상 진단, 로봇수술 시스템, 바이오센서 등 혁신 의료기기 분야에 참여

* EU는 '24년 Med4Cure(보조금 최대 € 10억)와 '25년 Tech4Cure(보조금 € 4.03억)를 승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회원국이 AI·디지털 의료기기와 맞춤형 의료 분야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지원

- '25년 기준 투자 우선순위 ① AI 기반 영상진단·영상 데이터 분석 솔루션, ② 웨어러블·스마트 바이오센서, ③ 로봇수술 및 재활보조 로봇틱스, ④ 원격환자관리(Remote Patient Monitoring) 플랫폼

* 이는 고령화와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데이터 기반 맞춤형 의료 실현을 위한 전략적 투자 방향

- **최근 수출입 동향**

- 제약 분야에서는 독일에 이어 유럽 2위의 수출 강국이나, 의료기기(첨단·디지털)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

* 치과용 장비,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일부 진단기기 등은 자국 내 중소기업 기반 제조기업들이 다수 있으나, 첨단장비의 수입 규모가 큰 편

- 의료용 기기(HS 9018) : '24년 수입 47억 달러, '25년 1~6월 수입은 20.6억 달러(-13.7%)를 기록

* 주요 수입국 :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중국 순이며 한국은 수입국 10위('25.9. GTA)

- 의료용 영상진단장치(HS 9022) : '24년 수입 7억 달러, '25년 1~6월 수입은 2.3억 달러(-15.2%)로 감소

* 주요 수입국 : 네덜란드, 독일, 미국, 프랑스 순이며 한국은 수입국 7위('25.9. GTA)

- 체외진단기기(HS 3822) : '24년 수입 17억 달러, '25년 1~6월 수입은 8억 달러(-6.6%) 기록

* 주요 수입국 : 독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순이며 한국은 수입국 12위('25.9. GTA)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이탈리아는 Siemens Healthineers, GE Healthcare 등 글로벌 대기업이 강세

- 최근 현지 중소기업·스타트업이 AI 영상진단, 원격의료 플랫폼 등에서 빠르게 성장

이탈리아 디지털 헬스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Esao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클라우드-네이티브 PACS('SUITESTENSA ZefiRO')와 차세대 초음파 혁신 공개 - AI 기반 지능형 플랫폼(MRI 'E-SPADES', 초음파 'Augmented Insight') 론칭, 검사시간 단축·정확도 제고 * 응용 확장 : 수의영상 MRI 신제품도 동시 전개(코어 기술 내재화·플랫폼 전략 강화)
LivaNova (구.Sorin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혈관 및 신경 조절 글로벌 메드테크 선도기업 - 차세대 체외순환(Heart-Lung) 장치와 인공심장판막 포트폴리오 강화 * 신경 조절 부문에서는 우울증 뇌전증 대상 VNS(미주신경자극) 기기 임상 확장,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맞춤형 치료 솔루션 개발 중

자료: 기업 홈페이지 및 무역관 자체 조사

- 이탈리아 정부와 의료계, AI·원격의료·첨단 진단 기술 도입에 관심 다대
 - 이탈리아 병원 IT 전문기업 Z사, 한국산 의료 AI의 임상 데이터·효율성에 주목해 현지 병원 및 의료기관 내부 시스템에 한국 기업의 솔루션의 통합·운영을 주도
 - * 한국 기업 L사의 'INSIGHT CXR(흉부 X-ray 진단)'과 'INSIGHT MMG(유방암 진단)'가 이탈리아 핵심 권역의 지방보건국 공공진료시스템에 실제 도입

□ 기타(향후 전망, 기회 요인 등)

- 고령화 심화와 디지털 전환 정책(원격진료·스마트 병원 인프라 구축)에 따라 의료기기 시장은 '30년까지 꾸준한 성장세 전망
 - EU IPCEI-Health 참여로 AI 의료솔루션·로봇수술 시스템 등 혁신 분야에 EU 차원의 대규모 R&D가 본격화되며, 외국 기업과의 협력 기회 증가
 - * AI 진단 SW, 원격진료 플랫폼, 웨어러블 센서 등 틈새 분야에서 협력 기회 확보 가능
 -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센서, 디지털 진단키트와 같은 틈새 분야는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진출 기회 확대 전망

다. AI·디지털(제조업 자동화·스마트팩토리)

□ 제조업 디지털화·자동화 가속

- 이탈리아 디지털 시장은 '24년 816억 유로로 전년 대비 3.7% 성장
 - '28년 930억 유로의 시장 규모 전망으로, 제조·공공·헬스 부문에서 데이터·클라우드·AI 수요가 성장축('25.9. Anitec-Assinform)
 - * 디지털 전환 부문은 '24~'28년 연평균 10.2% 성장 예상으로, 제조업 자동화·AI·빅데이터·산업IoT 중심의 수요가 빠르게 확대

- 특히 제조업 자동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용 로봇 설치는 유럽 2위로 높은 자동화 저변 유지
 - * 남부에서는 '27년까지 35%의 기업이 Industry 4.0 기술(로봇·사이버보안·데이터 통합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 움직임('25.9. Unioncamere-Tagliacarne)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제조업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견인
 - 'Transizione 5.0(산업 5.0 전환 세액공제)' 시행으로 '24~'25년 투자에 대해 35~45%의 세액공제 제공, 총 예산은 127억 유로
 - * 공장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3% 이상, 특정 공정 단위는 5% 이상 절감해야 하며, 투자 대상은 반드시 스마트 설비·소프트웨어·MES/SCADA 등 산업 4.0 자산과 연계되어야 함
 - PNRR과 연계해 디지털화 부문에 배정된 예산은 총 234억 유로 규모로 '26년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
 - * 기업의 디지털 전환, 생산시스템 경쟁력 강화, 기술 이전·지식재산 시스템 개선에 투자 진행
 - 국가 AI 전략('24~'26)와 AI 투자펀드로 최대 10억 유로의 초기 자원 조성
 - * '24년 내각 법안으로 AI 프레임워크와 초기 투자 방향을 확정하고 AI 프로젝트·스타트업 지원
- 최근 수출입 동향
 - 제어반·전력전자 부품은 수출 시장에서 강점을 보유한 반면 산업용 로봇 완제품과 고성능 드라이브는 수입 의존이 큰 구조
 - 산업용 로봇(HS 847950) : '24년 수입 18.5억 달러, '25년 1~6월 수입은 9.1억 달러(-5.3%)를 기록
 - * 주요 수입국 :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프랑스 순이며 한국은 수입국 16위('25.9. GTA)
 - 서보드라이브/인버터(HS 8504) : '24년 수입 35.2억 달러, '25년 1~6월 수입은 16억 달러(-12.4%)로 감소
 - * 주요 수입국 : 중국, 독일, 네덜란드, 튀르키예 순이며 한국은 수입국 37위('25.9. GTA)
 - 전기제어장치(HS 8537) : '24년 수입 17.9억 달러, '25년 1~6월 수입은 7.9억 달러(-15.5%) 기록
 - * 주요 수입국 : 독일, 중국, 헝가리, 네덜란드 순이며 한국은 수입국 22위('25.9. GTA)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제조업체들은 에너지비 상승, 인건비 압박, 인력난 대응을 위해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가속화 중
 - * 에너지효율형 자동화(EMS+MES 연동), 예지보전(AI 비전·센서), AGV/AMR·협동로봇 투자가 확대. 세액공제 요건(에너지 절감) 충족 설계가 발주 조건으로 부상
- 발주 조건 중 일부는 Transizione 5.0 요건(절감수치·검증 보고서 제출) 연동 설계가 확대되고 있음
- 기존 노후 설비를 대상으로 한 리트로핏(retrofit) 수요 증가세로 센서 부착, 제어기 업그레이드, AI 모니터링 패키지 등 저비용·효율 개선 수요 다대
 - * 타이어 제조사 Pirelli, 설비·공정 자동화·디지털화 및 AI 기반 에너지 효율화 투자('24~'25. € 8.2억), 기존 공장 자동화·디지털 전환으로 효율성 개선 및 비용 절감 목표(>€ 2.7억) 추진

이탈리아 자동화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COMA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리노에 위치한 산업로봇·자동화 전문 기업 - 자동차·일반 제조 대상 AI 비전+디지털 트윈 통합 패키지 확대, 에너지 절감 KPI 연계 프로젝트 수주 증가 * 협동로봇·배터리팩 조립 등 고효율 셀 솔루션으로 리트로핏 수요 흡수
Bonfiglio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로냐에 위치한 드라이브·모션컨트롤 생산 기업 - 스마트 기어모터/인버터에 예지보전 알고리즘과 IIoT 연결 내장 → 에너지 절감형 구동계로 머신빌더 레퍼런스 확대 * 산업 5.0 요건 대응형 고효율 드라이브 패키지(모터+인버터+HMI) 보급

자료: 기업 홈페이지 및 무역관 자체 조사

- 이탈리아 최대 조선기업 Fincantieri, 한국 스타트업과 협력 모색
 - 조선·해양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green & digital transition)을 핵심 과제로 추진, 선박 설계·생산 전반의 자동화·AI·친환경 기술 도입을 확대 중
 - * '25.7. Fincantieri, 오픈이노베이션 전략 일환으로 서울에 '혁신 안테나' 설립, 현지에서 한국 스타트업과 첨단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행사 개최
 - 한국을 로봇·AI·스마트팩토리 기술력이 결집된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평가하고, 조선 자동화·산업용 로봇·AI 예지보전·드론 활용 등 첨단 제조 기술 분야의 협력 파트너 발굴을 추진 중
 - * Fincantieri측, 한국 스타트업의 빠른 기술 상용화 역량과 공정 자동화 분야 전문성이 동사의 디지털·친환경 혁신 전략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게 평가

□ 기타(향후 전망, 기회 요인 등)

- '25~'27년은 Transizione 5.0과 PNRR 디지털 분야 집중 집행으로 설비 및 SW 동시 투자 확대 전망
 - 기존 설비를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리트로핏(Retrofit)'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성장 증으로 코봇 EOAT, IIoT 게이트웨이, 데이터 수집기(DAQ), AI 예지보전 키트 공급 가능
 - 세액공제 요건 충족형으로 연동이 가능한 번들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 기대
 - * 고효율 서보/인버터 + 스마트 센서/비전 모듈 + 예지 AI 보드 + EMS·MES/SCADA 연동 SW

3. 협력 기회

가. 통상·G2G

□ (무역협정) '11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양국의 교역 확대

- 한-EU FTA는 '11년 7월 발효된 EU 최초의 아시아 국가와의 FTA로, 한국과 이탈리아 간 교역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됨
 - 협정 발효 이후 양국 교역 품목의 약 98.7~99%에 협정 관세율이 적용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상품에서 관세 장벽 제거
 - * 기계류, 운송장비, 화학제품, 전자기기, 농수산물 등 주요 품목에서 교역 확대 효과 발생
 - 특히 한국의 원자재(철강,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배터리 등은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이탈리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 한-EU FTA는 단순히 관세 절감에 그치지 않고, 원산지 증명 간소화 및 통관 절차 개선을 통해 비관세 장벽 해소에도 기여
 - 한국 기업들은 FTA를 기반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발판으로 이탈리아 기업과의 장기 계약, 유통·투자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성공 사례

- (개요) 한국의 N사, 밀라노 무역관의 지원을 통해 이탈리아 O사와의 거래를 3년 만에 재개하며 해당 섬유제품의 독점적 공급처로 자리매김
 - '11년 한-EU FTA 발효로 한국산 섬유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가격경쟁력이 강화, 품질 측면에서도 동유럽산 대비 우수성이 인정되어 바이어가 한국산으로 교체
- 코로나 기간과 이탈리아 경기 위축으로 2년간 거래가 중단되었으나, 무역관에서 바이어와 주기적 접촉, 현지어 활용 가격 협상, 품질 우수성 강조 등을 통해 신뢰를 유지
 - 원자재·물류비 상승으로 협상이 지연되었으나, FTA 무관세 혜택과 한국산 섬유제품의 품질 강점을 내세워 경쟁사 대비 가격대비 품질 우위를 확보
 - 결과적으로 동유럽 제품을 대체하며, 한국산 섬유제품이 바이어 조달망에 다시 채택, 현재는 한국 기업이 독점적 공급 기반을 유지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본 사례는 한-EU FTA가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가격과 품질경쟁력 기반의 시장 재진입 기회를 제공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
 - 특히 운임비 상승 및 물가 상승 등 외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과 품질 경쟁력, 현지어 기반 협상 지원이 결합되어 거래가 재개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출 시장 확보

□ (G2G)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서울, 2025.9.5) 개최
 - 이탈리아 수출신용기관인 SACE와 한국 D사 간 수출 신용 협력 MOU 체결로 SACE 보증 기반 한국 기업 금융 협력 가능 기대
 - * D사는 SACE 보증으로 2억 유로 조달(Push Strategy). 이탈리아 기업 기자재·서비스 구매 확대 전제의 'Push' 구조는 양방향 수출 연계형 금융으로 확장 가능
 - 이 외, KEXIM-CDP-SIMEST 3자 금융 MOU, 한국로봇산업협회-UCIMU 기술 협력, 부산진해자유경제구역청-이탈리아 상공회의소 협력 MOU 등 금융·제조·지역 투자협력 패키지 발표
- '25년 4분기 18차 한-이탈리아 방산·군수 공동위 개최 예정
 - 방위산업의 정부·군·민간기업 참여 확대, 국방우주 협력 논의 전망으로 완성 무기 체계의 대이탈리아 직접 수출보다 공급망 진입에 대한 기회 논의 가능
 - * 감시·통제·C4ISR, 사이버/암호·보안통신, 항만/국경 감시 등 Dual-use 인프라 분야의 2·3차 협력망 진입 가능
- 한-이탈리아 우주 협력 확대
 - '23년 韓 과기정통부-伊 우주청(ASI) MOU 체결 이후, 위성·항법·발사체 분야에서 실질 협력 프로젝트 진행
 - * 한국 기업이 보유한 발사체·위성 기술이 양자간 협력을 통해 유럽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하는 레퍼런스 사례로 이어질 수 있음



성공 사례

- '23년 韓 과기정통부-伊 우주청 MOU 이후 양국 간 우주 분야 협력이 실질 프로젝트로 확산
 - 양국은 정찰위성·항법시스템, 민간 발사체, 우주 데이터 교류 등에서 실질적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 이탈리아 Thales Alenia Space가 한국 정찰위성(K425) 및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참여, 양국은 SAR(합성개구레이다), 환경 모니터링, 재난관리 등 응용 분야에서 연구·세미나·자료 공유를 통해 협력 기반 확대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이번 협력은 단순한 정부 간 선언이 아닌 산업·민간 차원의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특히, 우주항공 산업은 다자간 협력 생태계가 중요한 만큼, 우리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제 협업 네트워크 구축에 전략적 초점

나. 프로젝트

□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

- 이탈리아는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65%로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부유식 해상풍력·태양광·에너지 저장시스템 프로젝트 추진 중
 - Edison, Enel Green Power, Glennmont, Emeren 등 민간·에너지 전문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EU 펀딩·인허가 지원·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환경을 조성하며 뒷받침하는 구조
 - * Edison社, 시칠리아 인근에서 975 MW 규모 개발 중, Enel Green Power, Trino 지역에 87 MW 태양광 발전소 및 25 MW BESS 건설 추진 등
- 이탈리아 송전공사 Terna는 '25~'34년까지 230억 유로 규모를 투자해 전력망 디지털화·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추진
 - 실시간 모니터링, 수요 반응(DR), 계통 유연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그리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 중
- 이탈리아 천연가스 인프라 운영사 Snam, 가스관 기반 수소 전환 사업 추진
 - Snam 주도, 북아프리카-이탈리아-오스트리아-독일을 잇는 3,300 km 수소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인 SouthH₂Corridor EU 우선사업(PCI)으로 선정됨
 - * 수소 수송 외에도 CO₂액화·운반·저장 프로젝트를 병행하고 있으며, EU 자금 지원을 받아 인프라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

이탈리아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현대화 주요 프로젝트 동향

프로젝트 명	투자 규모	추진 주체 (정부/EU/민간)	발주처	진행 단계	프로젝트 일정	한국 기업 기회
전력망 확충 프로젝트	약 €230억 (하기 스마트그리드 디지털화 사업 포함)	공공 (국영기업 Terna + EU 공동자금)	Terna (이탈리아 송전공사)	주요 구간 착수/일부 환경 허가 진행 중	'25~'34	송전설비 기자재, 시스템 제어 SW, AI 기반 전력망 관리 솔루션 등
스마트그리드 디지털화 사업	상기 €230억 중 약 €70억 규모	공공 (Terna, EU 펀드)	Terna (이탈리아 송전공사)	주요 구간 설계·시공	'25~'34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등
재생에너지 확대 프로젝트	약 €30억 이상	민간, EU 보조금 일부	주요 민간 에너지 기업	건설 단계, 일부 인허가 진행	'25~'30	태양광 모듈· 인버터, ESS·BESS 등
SouthH₂Corridor	약 €30억	민간(Snam) + EU PCI 프로젝트	Snam	예비타당성 완료, 환경 영향평가 중	'25~'32	수소 밸브· 압축기, 모니터링 센서, CO ₂ 저장· 이송 기술

자료: 각 기업 공식 보고서 및 보도자료, EU Commission·EIB 프로젝트 문서, 주요 언론 종합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G2B, B2B 등

- 이탈리아의 재생에너지 확대·전력망 현대화·수소 인프라 전환 과정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 가능
 - 한국 기업의 EPC(설계·조달·시공) 역량을 활용한 현지 프로젝트 수행 가능
 - * '25년 7월 한화에너지, 이탈리아 환경에너지안보부(MASE)로부터 600MW급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 6건에 대한 정부 승인을 획득, 남부 지역서 대형 ESS 설치 준비
 - 이탈리아의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전력망 현대화, 수소 인프라 프로젝트는 메이저 사업자에 대한 직접 공급뿐만 아니라, 현지 EPC·제조사·시스템 통합사와의 협력을 통한 간접 공급 방식도 유효
 - * Terna·Enel 등 주요 사업자의 협력기업(EPC·계량기·설비 제조사 등)에 계량기용 전지, IoT 모듈, 센서, 밸브, 전력변환 장치 등 다양한 부품을 납품할 기회 존재



성공 사례

- (개요) '24년 韓 V사는 伊 P社와 1,100만 유로(약 167억 원) 규모 리튬 일차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
 - 한국 기업이 이탈리아 유틸리티(가스·수도 스마트미터)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사례로 평가
- Pietro Fiorentini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유틸리티 계량기 제조업체이자 스마트그리드 전환 사업의 핵심 참여 기업으로, 비츠로셀은 향후 2년간 동사의 스마트미터에 사용되는 리튬 일차전지를 공급함으로써 유럽 유틸리티 시장에서 자사의 기술력을 입증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한국 기업이 현지 스마트그리드 시장 핵심기업과 B2B 계약을 체결해 안정적 진출 기반을 확보한 모범적 사례로, 배터리·스마트 계량·IoT 기반 에너지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B2B 협력이 가능함을 시사



Ⅲ.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49
2. 진출전략	51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멜로니 정부 안정 유지로 차기 총선('27)까지 정책 지속성 확보
- PNRR '26년이 마지막 해로 집행 가속, '27년 이후 EU 펀딩 축소 예상
- 골든파워 심사 강화로 전략산업 투자·M&A 제한 가능성
- 플라스틱세('26.7.), 설탕세('26.1.) 도입 등 세제 개편
- EU 규제 본격 시행 : CBAM 탄소비용 납부 개시, CSDDD 대기업 실사지 의무, CSRD 중소 상장사 보고 확대, EUDR 산림벌채 프리 공급망 검증 의무
- 방위·안보 예산 확대로 Dual-use 인프라 수요 증가



경제(Economic)

- '26년 성장률 0.8%(IMF) 전망으로 완만한 회복 기대
- ECB 완화적 기조로 금융 조달 여건 개선
- 인플레이션 안정세 진입으로 원자재·물류비 부담 완화
- 높은 국가부채(137%)는 재정 제약, 공공투자 지연 리스크로 작용
- 독일의 경제 둔화 및 對美 통상 불확실성으로 수출 변동성 상승
- 내수·공공투자 중심 성장, BESS·디지털 헬스 수요 증대
- 제조업 EU 3위 국가이나 중소기업 비중 99%로 거래·대금 회수 리스크 상존



사회문화(Social)

- 고령화(65세 이상 24.3%) 인구 증가로 의료·요양·원격의료 수요 증가
- 지역 격차, 소득 격차로 소비 양극화 심화
- 의식의 변화, 가치관, 신념 등에 따른 구매 패턴 변화 등(환경 관심, 윤리적 문제, 투명한 공급망 선호 등)
- 온라인·모바일 쇼핑·BNPL(선구매후지불) 확산으로 디지털 마케팅 중요성 증가
- 전문 노동인구 부족 심화로 자동화·로봇 수요 증가
- Made in Italy 브랜드 충성도 강한 보수적 시장으로 현지 협업·브랜딩 필수



기술(Technological)

- 스마트그리드·BESS·수소·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전력전자 수요 급증
- 디지털 헬스 분야, EHR/PACS(전자의학기록/의료저장전송시스템)·원격 모니터링·AI 진단 확산
- Transizione 5.0(디지털+친환경 투자 세액공제) 시행 지속
- 사이버보안·데이터 주권 강화로 인증·보안 내장형 솔루션 수요 증가
- 제조업 자동화 가속으로 로봇·AI·스마트팩토리 투자 증가
- 스타트업·클러스터 연계 오픈이노베이션이 점진적으로 확대

SWOT 분석

강점(Strength)



- 한-EU FTA 무관세로 가격경쟁력과 통관 신속성 확보
- 배터리·전력전자·반도체·바이오/의약·정밀부품 기술경쟁력 보유
- 인증·데이터·보안 등 규제 내재형 설계 역량
- K-콘텐츠로 브랜드 친밀도 상승
- 전 세계 다수국 프로젝트에서 축적된 EPC/부품 공급 레퍼런스

약점(Weakness)



- 현지 입찰·조달·인허가 등 정보 부족
- 이탈리아어 협상/문서 대응 역량 부족으로 가격·조건 협상력 약화
- 중소기업의 ESG·인증·데이터 보고 대응 인력/비용 부담
- 분절적 유통·복잡한 물류비/통관비로 소량·다품종 수익성 악화
- AS·반품 정책 등 현지화 운영 체계 미흡

기회(Opportunity)



- PNRR 마지막 해('26)로 프로젝트 집행 가속으로 대형 프로젝트 확장
- 고령화에 따른 의료/디지털 헬스 수요 증가
- Transizione 5.0(세액공제)로 스마트팩토리/자동화 투자 촉진
- 전산화·박람회 등 글로벌 네트워킹 창구 발달
- 디지털 채널 중심 소비재 성장세

위험(Threat)



- 독일 경기 부진·글로벌 수요 둔화 시 기계·중간재 수요 위축 지속가능성
- 높은 국가부채(137%)로 공공투자 대규모 프로젝트의 행정·절차 지연 리스크 상존
- EU 규제에 따른 인증 비용 및 데이터 의무 상승
- EU 역내 현지 조달 및 로컬 콘텐츠 요구 강화, 가격경쟁 심화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인프라·에너지·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 적합한 한국 기업의 핵심 부품·솔루션 연계
- 무관세·품질 경쟁력 활용, 가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로 브랜드 신뢰 구축



PNRR·프로젝트
활용 시장 확대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품질·한류 이미지로 현지 EPC·시스템 통합사와 장기 파트너십 구축
- ESG·CE·EU 규제 선제 대응, 제품 현지화 추진



현지 맞춤화와
규제 선도 대응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현지 유력 유통망·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하여 유통망 다각화 및 지역별 접근 강화
- 프로젝트 및 벤더 등록 정보 등 시장 정보 확보로 대응력 강화



벤더 등록·유통망
단계적 진출

WT 전략(방어/철수-위험 대응)

- 중상위 및 프리미엄 가격대·특화 부품 중심으로 시장 리포지셔닝
- EU 규제 변화에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장 차별화로
안정성 확보

2. 진출전략



전략 ①

선택과 집중 : 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품목 중심 진출



전략 수립 배경

- '26년 이탈리아는 PNRR 종료에 따라 재생에너지, 교통 인프라, 디지털 정부 등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집중될 전망
 - * 유럽연합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와 스마트그리드 구축 수요가 급증 중
- 한국 기업은 BESS,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인버터 등 첨단 기술력과 EPC 경험 보유
 - * 프로젝트별 부품·모듈·시스템·패키지 공급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 가능, 핵심 유망 품목 집중 전략 필요

□ 현지 동향

- '25년 9월 기준 PNRR(이탈리아 복원 및 회복성) 누적 지급 약 72%, '26년 내 집행 마감 압박으로 연내 발주·집행이 가속할 전망
 - 에너지·인프라 발주 비중이 40% 이상으로 가장 크며, 에너지 저장 및 스마트그리드 구축 수요가 급증 중
- 신재생 발전 확대와 함께 전력망의 안정성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며 BESS 수요가 본격 확대
 - PNRR 자금 지원과 함께 민간 주도의 태양광·저장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가 증가 추세
 - * '25년 6월 EDP와 SIAD 그룹의 합작으로, 이탈리아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스토리지 시스템 연계 추진
 - '25년 유럽 전체 에너지 저장 시장은 전년 대비 약 두 배 규모로 성장할 전망, 이탈리아는 독일, 영국과 함께 상위 3대 시장
 - * '25년 8월 이탈리아 환경에너지부는 라치오·폴리아·사르데냐에서 총 361 MW 규모의 B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프로젝트 5건에 대한 최종 승인을 완료
- 전력망 운영 측면에서 Terna 등 송전사가 스마트그리드 기반 확대 사업 추진
 - 마이크로존(grid micro-zones) 모델을 도입하며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통합 기반 마련 중
 - * 지역 단위로 분산된 재생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운영 방식으로 평가

이탈리아 전력산업 Terna사의 전력망 현대화 사업

기업명	주요 내용
Terna (이탈리아 송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PNRR 중심, '26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과제 : 송배전망 현대화, 스마트 계량기 보급, ESS 연계 프로젝트 추진 - 목표 : 단기 집행 압박('26년 마감)에 따른 신속 발주·집행 • 장기('25~'34년 10개년 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30억 유로 투자로 남북 간 송전 병목 해소 및 계통 안정성 강화 위한 대규모 인프라 확충 - 실시간 모니터링, 수요 응답(DR) 등 스마트그리드·디지털 인프라 투자 병행

자료: 기업 홈페이지

□ 유망 품목

- 에너지 저장시스템(BESS) 핵심 부품·시스템
 - 배터리 셀·모듈, BMS(배터리 관리시스템), PCS(전력변환장치), 냉각·소화 장치
 - 대형 프로젝트용 MW급 시스템과 태양광 연계 소규모 ESS 모두 기회 존재
 - * 이 외, 태양광·풍력 인버터, 전력변환장치(컨버터), 발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재생에너지 연계 핵심 장비
- 스마트그리드 장비 및 전력 인프라 솔루션
 - 디지털 계량기, 고효율 변압기, 보호계전기, 전력계측기, IoT 기반 모니터링 장비
 - * 특히, 이탈리아 가정·산업용 스마트 미터기 교체사업 추진에 따라 통신 모듈, 전력량 측정 센서, 배터리 등 관련 부품 수요 확대 예상
 - 수요 응답(DR), 계통 유연성 확보 솔루션 등 스마트그리드 디지털 전환 기술

□ 진출전략

- 프로젝트 발주·벤더 등록 정보 제공 강화로 참여 기회 확대
 - PNRR 및 Terna 발주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이 EPC·부품 시스템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발주처·EPC사 벤더 등록 정보 제공 및 현지 파트너 발굴 지원을 통한 진출 기반 마련
 - * TERNA사 벤더 등록 안내 사이트 : <https://www.terna.it/en/suppliers#diventaforntore>
- 연관 전시회에서 유력 바이어 발굴 및 한국 기업의 강점 품목 중심 공략
 - 전력망 디지털화 관련 현지 전시회·세미나를 통한 기술 홍보 및 바이어 매칭 추진
 - 스마트그리드 확대 및 스마트 미터기 교체사업에 대응해 디지털 계량기·통신 모듈·센서 등 부품 수출 지원

전략 ②

수요 확대 대응 : 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진출



전략 수립 배경

- 급속한 고령화로 헬스케어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
 - * IPCEI-Health-공공 조달 중심 도입 진행으로 인증·데이터보안 충족 제품 선호
- 한국 기업은 디지털 의료기기, 병원 IT 솔루션, 원격진단 시스템 등 혁신형 의료 기술과 글로벌 상용화 경험 보유
 - * 병원·클리닉 도입형 의료기기 및 공공 조달용 IT 솔루션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 가능

□ 현지 동향

- PNRR 보건의료 부문 예산 약 150억 유로 배정, '26년까지 원격진료 플랫폼, 디지털 병원 네트워크 구축 추진
 - '25년 7월 기준, 원격진료 시범 사업이 전국 16개 주(Region)에서 운영 중이며, '26년까지 전역 확대 목표
 - 이탈리아의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최근 혁신 스타트업과 해외 기술에 대한 개방성이 커지고 있음
- EU 차원에서도 IPCEI-Health(Med4Cure, Tech4Cure) 프로젝트를 통해 헬스케어 분야 공동 연구 개발 및 산업 육성 본격화
 - 이탈리아는 IPCEI-Health 참여국으로, 디지털 헬스·원격진료·바이오 데이터 관리 분야 프로젝트에 투자 확대 중
 - * IPCEI-Health는 ▲ Med4Cure(제약, 공적자금 약 10억€, 민간투자 약 59억€)과 ▲ Tech4Cure(디지털 헬스케어, 공적자금 약 4억€, 민간투자 약 8.3억€)로 구성
 - 특히 Tech4Cure는 디지털 헬스·데이터 관리·AI 의료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한국 기업의 ICT·의료기기 솔루션과 연계 가능성 존재
- 대형 병원·클리닉 중심으로 AI 영상진단 도입 및 의무기록 디지털화를 가속화
 - 의료 데이터 보안·환자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증가, GDPR·MDR 규제에 따라 인증·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솔루션 수요 증가
 - * 밀라노 San Raffaele 병원, AI 기반 영상진단 솔루션 도입('25년) 및 로마 Gemelli 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추진

□ 유망 품목

- 디지털 의료기기 및 진단 솔루션 등 현대화
 - AI 의료 솔루션 : X-ray/CT/MRI 영상 판독 AI, 병리 슬라이드 분석 AI 등
 - * 전국 134개 종합병원의 영상진단에 AI 도입 목표, 정확도 입증된 제품 수요 예상
 - 원격의료 장비 : 환자 원격 모니터링 센서(심전도패치, 혈당센서 등), 웨어러블 헬스기기(스마트워치 의료용 앱)
 - * 재택 환자 관리 및 만성질환 모니터링 시장이 확대되며, 고령자·만성질환자 중심의 수요 지속 전망
 - 디지털 헬스 플랫폼 : 전자의무기록(EMR/EHR) 소프트웨어, 병원정보시스템(HIS), 약품·자산관리 플랫폼
 - * 노후화된 병원 IT시스템 교체 및 지역 의료 데이터 통합 사업이 진행 중으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수요 증가

□ 진출전략

- 공공 조달 기반 의료기기 시장 진출
 - 의료기기의 주요 수요처인 공공병원은 입찰을 통해 구매하므로, 현지 입찰 참여가 가능한 의료기기 에이전트·전문 바이어 발굴 필요
 - 주요 의료기기 전시회·박람회 참가를 통해 현지 에이전트·유통사와의 접점 확대 및 발굴로 입찰 참여 기회 확보 가능
 - * 의료기기 분야 주요 전시회 : Exposanità(볼로냐, 격년), MEDICA(독일 뒤셀도르프, 매년 11월)
- 규제·인증 및 데이터 보안 대응 강화
 - 의료기기는 CE MDR 인증과 경우에 따라 이탈리아 보건당국(AIFA)의 별도 등록이 필요, 진출 목표 1~2년 전부터 임상데이터 축적 및 인증 절차에 착수
 - AI 기반 의료 솔루션의 경우, EU AI Act 및 GDPR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데이터 관리·알고리즘 투명성 입증 중요
 - * 현지 전문 에이전트는 보건부 기기 등재뿐 아니라 GDPR 준수, 데이터 국외 이전 절차, AI Act 대응 등 복합적 규제 컨설팅 역할을 수행
 - 현지 파트너십 또는 직접 투자를 통해 유통망을 장악하면 시장 진입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음
 - * 일부 한국 기업은 현지 전문 유통기업 인수를 통해 유통망을 직접 확보하는 방식으로 성공 사례 창출

전략 ③

공급망 연계 확대 : 제조 자동화·친환경화 중심 진출전략



전략 수립 배경

- 이탈리아는 Transizione 5.0(전환 5.0) 정책을 통해 제조업 전반의 자동화·에너지 효율화 투자를 확대 중
 - * 자동화·친환경화 과정에서 설비 교체·부품 신규 조달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OEM들의 공급망 재편에 따라 신규 벤더 진입 기회 발생
- 한국 기업은 산업용 로봇,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친환경 부품·소재 등 경쟁력 보유
 - * 항공우주, 조선, 자동차 등 이탈리아 주력 제조업의 공급망 다변화 요구에 부합

□ 현지 동향

- '25년부터 'Transizione 5.0' 정책 본격 시행
 - 총 130억 유로 규모의 세제 혜택 프로그램으로, 이탈리아 내 사업장을 둔 국내외 기업이 에너지 절감 효과를 입증할 경우 최대 45% 세액공제 가능
 - 에너지 비용 절감 압박과 EU 탄소중립 규제 대응 수요에 맞물려, 자동화·스마트팩토리·에너지 절감형 설비 교체가 촉진되는 추세
- AI·IoT·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제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규제를 결합한 새로운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
 - 저전력·저탄소·재활용·유해물질 저감을 충족하는 친환경 제품·소재·전력전자·소프트웨어까지 포괄한 새로운 GVC 구축이 진행 중
- 첨단 제조업(항공우주·조선 등)에서 디지털화·탈탄소화가 동시에 진전
 - Leonardo(항공·방산), Fincantieri(조선) 등 주요 프라임 기업이 공정 자동화와 친환경 규격을 동시에 적용하며 벤더 기준을 재정의
 - 이 과정에서 신기술 적용 수요 품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GVC) 형성이 진행 중

□ 유망 품목

- 스마트팩토리·자동화 장비 및 에너지 절감·친환경 설비
 - 산업용 로봇, 모션컨트롤 시스템, 센서·액추에이터, 자동화 검사장비
 - * 제조업 전반의 자동화 수요 확대와 함께 공정 효율성·인건비 절감을 위한 핵심 설비로 수요 증가 예상
 - 고효율 모터·드라이브,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 열회수 시스템
 - *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교체·투자하는 장비군

- **첨단산업 공급망 부품**

- 항공우주 : 경량 합금, 첨단 복합소재, 항공 전자부품 등 첨단부품

* Leonardo 등 현지 프라임 기업이 항공기 경량화·친환경화 추진으로 신규 벤더 진입 가능

- 조선 : 친환경 추진 체계 부품, 선박용 에너지 절감 장치

* IMO(국제해사기구) 규제 강화와 연계, Fincantieri 등 선박 제조사의 친환경 부품 채택 수요 증가

□ 진출전략

- **이탈리아 주요 제조업체 벤더 네트워크 직접 공략**

- 이탈리아의 대표 제조기업(Leonardo, Fincantieri 등)은 자동화·친환경 전환에 따라 공급망 재편
중으로 기술력과 ESG 인증을 갖춘 신규 벤더를 적극 발굴

* 벤더 등록 과정에서는 ESG 인증, 기술 적합성, 데이터 투명성 등 까다로운 요건 충족이 필수이며, 단순
부품 납품만으로는 진입에 한계 존재

- 산업용 로봇, 모션제어, 친환경 부품 등 핵심 기술역량을 앞세워 현지 벤더 인증 요건을 선제적으로
충족하여 납품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

* KOTRA 밀라노 무역관은 Leonardo(항공·방산), Fincantieri(조선)과 파트너십을 통해 GP(Global
Partnering) 사업으로 한국 기업 매칭 지원

- **현지 제조업 전환 프로젝트와 직접 연계한 레퍼런스 확보**

- Transizione 5.0 정책으로 스마트팩토리 장비·솔루션(산업용 로봇, 모션컨트롤, 센서,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 수요 발생

- 기계·자동화 장비는 현장에서의 성능 검증이 중요하기에 SPS Italia(파르마), MecSpe(볼로냐) 등
현지 대표 전시회 및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기술 파트너’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이 효과적

전략 4

소비재 시장 : 프리미엄·온라인 투트랙 소비재 진출



전략 수립 배경

- 노동 시장 이중 구조와 임금 정체로 중산층 소비 기반이 축소되며, 내수 시장은 프리미엄 가치소비와 저가 필수재 중심으로 양극화되는 추세
 - * 청년·남부 지역의 실업률은 높지만, 동시에 디지털 친화적 소비세력으로서 새로운 수요 창출, 고령층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건강·웰빙 관련 소비를 유지하며 일부는 프리미엄 수요를 형성
- 한국 기업은 K-뷰티·리빙 제품의 품질·디자인 차별성과 온라인 마케팅·브랜드력으로 경쟁력 확보 가능
 - * 다양한 계층·지역별 소비 성향에 대응한 프리미엄+온라인 투트랙 포트폴리오 전략 필요

□ 현지 동향

-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 정체로 구매력 회복은 제한적
 - '25년 물가 상승률 2.0% 전망(IMF)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식료품 가격 부담과 낮은 실질임금이 소비 여력 제약
 - 이에 따라 중간 가격대 제품 수요는 위축, 소비는 프리미엄 가치소비와 실속형 소비로 양극화 고착
- 소비 양극화의 다층적 전개와 채널의 변화
 - 프리미엄 수요 : 웰빙·친환경·브랜드 가치 중심 소비가 전 연령대에서 확대
 - 실속형 소비 : PB·중저가 생활재, 온라인 할인몰, BNPL 기반의 소비 확산
 - * MZ세대는 온라인·디지털 친화적 소비 주도로 브랜드 스토리와 가격경쟁력 있는 제품에 반응
 - 전자상거래는 '29년까지 연평균 9% 성장 전망, 패션·뷰티·식품·리빙 전 품목으로 확대
 - * 소셜미디어·인플루언서 연계가 제품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 한류 확산으로 K-소비재에 대한 문화적 수용성 확대 가속화
 - K-팝·K-콘텐츠를 매개로 젊은 층뿐 아니라 주류 소비층까지 브랜드 인지도 상승
 - 단순한 “한국산” 이미지보다 스토리텔링·감성 마케팅이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유망 품목

- 프리미엄 소비재
 - 기능성 화장품(비건·항노화·친환경 포장), 건강식품·클린라벨 식품
 - * 웰니스·ESG 가치소비 확산과 브랜드 스토리 중시 경향이 전 연령·지역에 걸쳐 확대되며, 가격보다는 기능·지속가능성·차별화된 이미지가 소비 결정 요인으로 부각
- 온라인 유통 적합 소비재
 - K-푸드(간편식·스낵류), 기초 화장품·퍼스널케어, 패션 액세서리 등
 - * 온라인·SNS 구매가 일상화되며, 한류 확산 효과와 편리성·접근성을 갖춘 제품군이 빠르게 성장할 전망

□ 진출전략

- 프리미엄화와 더불어 스토리텔링 기반 마케팅 강화
 - 기능성 화장품, 건강식품 등은 ‘지속가능성·브랜드 스토리·혁신성’ 부각으로 프리미엄 포지셔닝 강화 필요
 - * 현지 소비자는 원산지, 생산과정, ESG 가치 반영 여부에 민감하므로 친환경 포장, 클린라벨, 비건 인증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스토리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 이탈리아 소비자는 제품의 기능적 품질뿐 아니라 문화적·감성적 가치를 중시,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한 스토리와 정체성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
 - *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인플루언서의 스토리 공유를 신뢰의 근거로 삼는 경향이 강해, 인플루언서 협업을 활용한 내러티브형 콘텐츠 마케팅이 효과적
- 온라인 유통망 진출 및 온·오프라인 복합 채널 공략
 - 아마존 이탈리아 등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 초기 진입 추진으로 브랜드 인지도 형성 가능
 - 동시에 Sephora, Esselunga 등 온·오프라인 복합 유통망 입점을 통해 시장 인지도 제고
 - * 대형 유통망은 현지 벤더(수입상)를 통한 공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현지 유통사·리셀러와 협업해 물류·CS 대응 체계 강화 필요
- 전시회·소비자 박람회를 통한 바이어·소비자 접점 확대
 - Cosmoprof Bologna(화장품), Tuttofood Milano(식품) 등 주요 박람회 활용
 - 현지 바이어 상담과 동시에 최종 소비자 트렌드를 직접 확인하며 제품 포트폴리오 현지화 가능
 - * 바이어·리셀러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오프라인 복합 유통망 진출 기반 강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 선정사유**
- PNRR 마감('26) 전후 BESS 발주 확대, MW급 스토리지에 필수 핵심 구성품
 - 재생에너지 연계 확대에 그리드 안정성·안전성 요건 강화로 고신뢰 BMS 수요 증가
- 경쟁동향**
- 로벌 PCS/ESS 메이저의 내재화 경향은 있으나, 프로젝트별 맞춤 설계·안전규격 대응 수요로 외부 BMS 채택 여지 존재
- 진출방안**
- 차별 포인트로 시장 공략 및 벤더 등록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 필요
 - ① 안전(이중화, 절연감시, 열관리 연동) ② 정확한 SoX 추정 ③ 현장 서비스·SLA ④ 그리드/통신 호환성(PCS·EMS 연동)으로 틈새시장 진입

태양광·풍력 인버터(전력변환장치)

- 선정사유**
- 태양광·저장 연계가 급증하면서 발전-저장-계통 간 전력변환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
- 경쟁동향**
- 화웨이·SMA·ABB 등 유럽·중국계 강세
 - 효율·고장률(신뢰성)·원격제어/API 개방성이 차별 포인트로, 현장 맞춤형(산업·상업·유틸리티급) 인버터 수요에 중견기업 틈새 존재
- 진출방안**
- Enel Green Power, Edison, A2A 등 EPC/유틸리티 공급망 참여
 - 그리드 코드 인증 CEI 0-21(LV) / CEI 0-16(MV), EN 50549-1/-2, CE(LVD/EMC) 대응
 - 프로젝트 단위 커스터마이징(스카다/DR 연동, PID·아크 보호, 냉각·IP등급·환경내구)로 제한

의료용 영상·진단 하드웨어(휴대형 초음파/ECG·원격모니터링 기기)

- 선정사유**
- '26년까지 디지털 병원 네트워크 확산, 원격진료·영상진단 투자 확대(보건 PNRR 예산 약 150억 유로)
 - 고령화·만성질환 관리로 가정·외래 기반의 원격모니터링 하드웨어 수요 증가
- 경쟁동향**
- GE Healthcare, Philips 등 글로벌 기업이 선도
 - 휴대형·특정 임상 특화 하드웨어 및 연동성 강점 품목에 진입 여지
- 진출방안**
- MDR(CE), ISO 13485, UDI/EUDAMED 준비 및 GDPR 준수 프로세스 명시(데이터 보안·호스팅)
 - 대학병원·공공병원 파일럿이 지역보건국에 확산되는 프로세스로, Exposanità(볼로냐)/MEDICA 등 전시회로 에이전트·조달 채널 확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원격진료·환자관리 SaaS)

- 선정사유**
- '26년까지 지역(Region) 단위 원격진료 확산, 고령화·만성질환 관리로 가정 모니터링·데이터 통합 수요 증가
 - 한국 기업의 병원 IT·원격 모니터링·AI 분석 역량과 공공 디지털화 과제가 부합
- 경쟁동향**
- 공공 조달(Consip/MEPA, 지역 보건청) 중심으로 SaaS/매니지드 서비스 채택 확대
 - 글로벌·현지 솔루션 혼재, 통합·운영·보안 영역에서 외부 전문사업자 수요
- 진출방안**
- 현지 SI/의료기기 에이전트와 컨소시엄 구성, 소규모 파일럿 후 공공의료 기관으로 확대 가능
 - 규제 패키지(MDR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해당 시 CE, ISO 27001/27701, GDPR)와 EU 내 데이터 호스팅 원칙 준수

스마트 물류·라스트마일 배송 서비스

- 선정사유**
- 일반 수출입 외에도 기계 및 장비 수리 등의 특수 수출입 분야에서 전문 물류 서비스 수요가 증가
 - 전자상거래 연 9% 성장, 식품·화장품·패션 온라인 판매 급증
 - 도심 내 탄소중립 규제로 전기차·e-바이크 기반 친환경 배송 수요 확대
- 경쟁동향**
- DHL·GLS 등 대기업이 점유하지만 라스트마일은 중소 물류사 분산 구조
 - 현지 친환경 배송망 부족으로 한국형 솔루션 적용 여지 큼
- 진출방안**
- 현지 유통망(Esselunga, Coop, Amazon)과 친환경 배송 솔루션 공동 시범사업
 - 라스트마일 배송 스타트업과 합작 진출, 물류 SaaS 제공

에듀테크(교육)

- 선정사유**
- EU와 이탈리아 정부가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IT·코딩 교육을 장려
 - 이탈리아에서 급성장 중인 산업으로 디지털 교육 솔루션과 가상 학습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경쟁동향**
- 현지 시장은 영어·IT 자격증 위주의 전통적 교육이 강세, 글로벌 플랫폼(Udemy, Coursera)이 온라인 시장 선점
- 진출방안**
- AI 및 맞춤형 학습 기술 수요 증가와 함께 현지화된 콘텐츠 개발을 위해 현지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
 - B2B 모델로 기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제조업 자동화·ICT 분야) 공급 가능



'26년 이탈리아 지역 KOTRA 주요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소비재/유통망	• 伊 온·오프라인 유통망 활용 K소비재 팝업스토어	연중/이탈리아
프리미엄 소비재 전문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로냐 Cosmoprof 뷰티 전시회 한국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뷰티 현지 인플루언서 마케팅 추진 - 화장품 산업 바이어 매칭 및 후속 지원 • 볼로냐 Cosmoprof 뷰티 전시회 연계 무역사절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수출 상담회 및 샘플 쇼케이스 	3월 26일~3월 29일/ 볼로냐
조선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伊 조선·해양기자재 GP 상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scantieri Supply Day 연계 핀포인트 상담회 	4월/트리에스테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伊 반도체 GP 상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설립 반도체 제조 기업 프로젝트 수주 지원 - 반도체 후공정 분야 공급망 진입 기회 모색 	6월/피에몬테
프리미엄 소비재 전문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라노 추계 섬유전시회(Milano Unica) 한국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직물 분야 바이어 매칭 및 후속 지원 	7월 7일~7월 9일 /밀라노
항공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伊 항공우주 로드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伊 클러스터내 기업 <-> 국내 기업 매칭 및 상담 주선 - 항공우주 분야 전시회 연계 국내 기업 로드쇼 개최 	9월/밀라노
의료/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의약품 전시회(CPHI) 한국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의약품 분야 바이어 매칭 및 후속 지원 - K Bio&Pharma 기술 세미나 - Next K-Bio Innovators 스타트업 피칭 	10월 6일~10월 8일 /밀라노
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伊 장인전시회(Artigiano) K-소비재 판촉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홍보 및 현장 판촉전 개최 	12월/밀라노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	비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선거	2026년(미정)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2월 6일~22일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	비고
2027년 예산안 발표	10월	

유망 전시회 캘린더		
전시회명	일시(잠정)	장소
이탈리아 밀라노 섬유직물전(Milano Unica)	1월 20~22일 7월 7~9일	섬유 원단
이탈리아 볼로냐 미용 박람회(COSMOPROF Bologna)	3월 26~28일	화장품
이탈리아 밀라노 가구전(Salone del Mobile)	4월 21~26일	가구, 인테리어 디자인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 의료 보건 박람회(Expo Sanità)	4월 22~24일	헬스케어, 의료기기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식품전(Tutto Food)	5월 11~14일	식품 및 음료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김화목	차장	밀라노무역관	+39 02 795813	marcos.kim@kotra.or.kr
2	유지윤	과장	밀라노무역관	+39 02 795813	jiyun.milano@kotra.or.kr

2026 이탈리아 진출전략



ISBN : 979-11-402-1503-4 (95320)